

경주캠, ‘5·20 학생총회’ 성사

계열별 모집 반대·성폭력 근절 학칙제정 촉구

지난 20일 오후 1시 경주캠 녹아원에서 재적인원 8천7백 81(99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납부자)명 중 5분의 1이 넘는 1천7백65명이 참석해 학생총회가 성사됐다.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경주캠 전체학생총회에서 중앙운영위원회(위원장=이상섭·불교4)는 이날 오후 1시이후부터 전면적인 수업거부를 선언, 99 교육개혁 및 학생자치권력의 복원을 위한 '5·20 학생총회'를 이뤄내 현재 학교측과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이날 총회는 △정족수 확인 △개회 △사발식 △안전발제·2000년 계열별 모집단위 반대에 관한 건, 성폭력 근절 학칙 초안에 관한 인준권 △안전인준 등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안건은 모두 의결됐다.

계열별 모집단위에 대해서 이

상섭 총학생회장은 "학교당국은 정작 교육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을 무시한 채 항상 일방적인 결정을 내려왔으며, 지금도 2000년도 광역화 모집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교육비의 등록금 전가 반대, 국가책임하 재정 확충 △장기적인 차원의 대학운영위원회 구성을 전제로 소위원회 구성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학사행정 집행 등의 99교육개혁 투쟁 6대 요구안을 학교측에 제시했다

2000년 계열별 모집단위 광역화는 올해 3월 1일부터 고등교육법에 상응하는 시행령 제28조 제2항으로 2개 이상의 유사한 학과의 경우 한 단위로 모집, 이는 ▲모집단위하에 학과가 존재하는 △대학 전체 또는 단과대학 단위 △대계열 소계열 △학과군 모집과, ▲모집단위하에 전공이 남는 학부모집으로 나뉘지며, ▲학문의 특성과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과모집을 하도록 하는 등 크게 세가지 계획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4월초 교육개혁종합관리팀이 '본교의 학생 모집단위 광역화와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과제'에서 제시한 내용은 △전공필수의 폐지 △최소전공이수학점의 하향조정 △복수전공의 활성화 등 전공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모집단위의 광역화를 추구하고, 폐쇄적인 전공운영을 지양하고 수요자에 부응하는 다양한 전공교과과정의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모집단위의 광역화를 실시하고 있는 한대의 경우 전체 학생을 단일 모집단위로 모집하며 아주대는 13개 학부별로 모집하고 있다. 이외에도 연세대를 비롯한 다수의 대학에서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계영(컴퓨터학) 경주캠 교무처장은 "학제개편은

학교에서 7월말에 승인, 8월말에 전국 대학별로 교육부에 상정, 모집인원·요강 등을 놓고 수정절차를 거친 9월경에야 모집단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현재 학교측에서는 광역화모집을 위한 여러 안들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안들 가운데 하나가 계열별 모집단위일 뿐"이라며 "2천년도 임시요강에 대해 좋은 방안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함께 논의해 봤으면 한다"고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자제를 촉구했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캠퍼스에서 2천년도 학제개편과 관련해 서울·경주캠퍼스 단과대 학장을



지난 20일 경주캠 녹아원에서 1천7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체학생총회가 성사됐다.

비롯 교육개혁종합관리팀이 모인 가운데 '학제개편추진위원회'가 열렸으며, 이를 통해서 방학기간 중에 구체적인 학제개편에 관해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원들간의 이해다툼보다는 본교의 발전을 위한 최선의 대안책이 무엇이며, 그에 따라 파생

되는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따라서 만들어 놓은 제도에 따르기 급급했던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교수·직원·학생 등 여러 구성원들간에 자발적·능동적인 논의를 이뤄 본교 실정에 맞는 학제개편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면으로 계속

“국보법 정당한가”

서울캠 총학주최 대토론회 열려
내일(25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정부의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캠 총학생회(회장=김호중·불교4)는 국가보안법 대토론회를 내일(25일) 오후 2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개최한다.

강정구 교수(사회학)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인권 운동사랑방 △전국연합 박세길 정책위원장 △국민회의 정책실 법사 △한나라당 정책실 법사 △국가보안법 피해자 영남위원회 가족1인 △법무부검찰 3과가 토론자로 참석하며 인권과 통일 운동에서 보는 국가보안법과 법적 측면에서 보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각 입장 발제와 토론자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으로 이뤄진다.

또한 국가보안법 존립·대처 입법 찬성과 국가보안법 폐지·대처입법을 저지하는 대립되는 양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참석한 학생, 사회단체, 시민들에게

국가보안법의 폐지 당위성을 알리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97학년도 서울캠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구장주(경영 (야)4)씨는 "만약 국민회의와 법무부 등의 참석자가 토론에 참가하지 않으면 대처입법에 대한 책임회피로 간주하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각 언론사를 통해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교 사격부, 회장기대회 ‘패거’

본교는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창원종합사격장에서 '제15회 회장기 전국 사격대회'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대회결과와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소구경복사=단체우승 △소구경 3자세=단체우승 △소구경 복사=개인1위(김정환·사회체육4)△소구경 3자세=개인1위(이

축구·야구부 본선진출
각각 연세·인하와 격돌

본교 축구부가 99 전국춘계대학연맹전 예선전을 4조 1위로 마감하고 본선에 올랐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16강전에서 조 2위를 기록한 광운대와 경기에서 5대4로 승리한 결과에 따른 것이며, 오늘(24일) 효창구장에서 연세대와 8강전을 갖는다.

한편, 야구부는 지난 17일 연세대와 마지막 예선 경기에서 18대 11로 승리해 본선에 올라 오늘(24일) 동대문야구장에서 인하대와 16강전을 치른다.

본교 사격부, 회장기대회 ‘패거’

승훈·사회체육4) △공기소총=단체3위 △센타화이어 권총=개인2위(김성훈·사회체육3) △센타화이어 권총=개인3위(최시운·경영4) 이와 관련해 학교측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본교 선수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얻은 결과인만큼 최고의 성적을 거둬 매우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지면안내	
☞ 학내자치공간을 진단한다	6~7면
	지난호에 이어 학내자치공간 및 생활복지공간을 살펴본다.
☞ 아픔의 현장, 광주를 가다	4면
☞ 기(氣)를 알아본다	10면
☞ 학내문예패를 살펴본다	12면

보리소

부처님 오신날의 알렐루야

윤 청 광 (불교방송 고승열전 작가)

부처님 오신날인 5월 22일, 아침신문의 사회면에는 색다른 사진 한 장이 크게 실려 독자의 눈을 끌었다.

십자가가 배경으로 세워진 어느 시골 성당의 정문앞에 “불축 부처님 오신날! 알렐루야! 도축성당 교우들이 함께 기뻐합니다!”라고 크게 써진 플래카드가 내걸린 사진이었다.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에 있는 도척성당에서 내건 부처님 오신날 불축 플래카드 사진 한 장은 우리들에게 참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기쁘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 사진 한 장은 우리들에게 종교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마음으로 느끼게 해주었다.

또 이 사진 한 장은 진정한 사람과 평화와 화합이 어떤 것인지도 생각해 해 주었다.

그동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는 종교의 이름으로 수많은 전쟁과 살육과 방화와 약탈이 자행되어 왔다.

최근에 벌어졌던 보스니아 전쟁, 코소보 전쟁도 알고보면 민족분규와 함께 치열한 종교전쟁이었다. 베이루트에서의 총격전과 살육전도 기독교 민병대와 회교 민병대들이 벌인 종교전쟁이었고, 이스라엘과 아랍국가간의 전쟁 또한 종교전쟁이었다.

역사가들이 지적한 바에 의하면 그동안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던 세계1차대전과 세계2차대전으로 죽은 사람 보다도 ‘종교전쟁’으로 죽은 사망자 숫자가 훨씬 더 많다는 것만 보아도 그동안 종교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서양종교가 들어온 것은 천주교가 2백년 전, 개신교가 1백년 전인데 최근 몇 년동안 일부 극악스러운 개신교계열의 광신적 집단들에 의해 전국 곳곳에서 사찰이 불타고 불상이 훼손되는 등 ‘종교적 공격행위’가 수없이 일어났고, 이러다가는 이땅에서도 저 끔찍하고 무서운 ‘종교전쟁’이 언젠가는 일어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지경이었다.

이런 때에 천주교 성당에서 부처님 오신날을 함께 기뻐한다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오는 겨울 우리 사회에서도 “주님 오신날을 축하합니다”의 멋진 플래카드를 곳곳에 내걸어 화답이 오가게 되면 더욱더 포근한 겨울이 되지 않을까.

동대신문 기획광고

한총련 출범식은 평화적으로 개최돼야 합니다.

이적? 웬 이적?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니요.
한총련은 우리 사회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을 합니다.
그것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회를 비판할 수 없습니까?
우리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니까요.



한총련 탄압의 근거는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것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한총련은 이적단체가 아닌걸요.
그럼 무슨 근거로 한총련을 막습니까?

동대신문사



V I E W F I N D E R D O N G G U K

 자비

어둠이 내려도 자비의 불빛은 동악 구석구석을 알일이 비춘다. 마치 부처님의 손길처럼...

촬영=송광수 동문

후문지역 매점전립 건의 예정

생협 지난 18일 임시이사회 열려

생활협동조합(이사장=김진철·정치외교학, 이하 생협) 임시 이사회가 지난 18일 오후 2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열렸다. 총대의원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7일 개보수공사를 마친 동국관학생식당의 개관에도 불구하고 다량관 학생식당 폐쇄에 따른 식당공간부족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학림관, 학생회관, 정보문화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식당이용에 불편을 느낀다는 학내 여론에 따라 학교측에 후문 지역에 매점을 건립할 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건립후보지역으로는 학림관 옆 계산관 여학생부처 자리가 추천되었다.

연구부, 연구년 교수 선정

허천택·김현규·조승환교수

연구교류처(처장=최순열·국어교육) 연구부는 지난 17일 연구년 교수 3명을 선정했다. 연구년 제도는 교수가 연구활동에 전념하도록 강의 시간을 없애주는 제도로 연구년은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이다. 선정된 교수는 허천택(영문학)교수, 김현규(교육학)교수, 조승환(미술학)교수이다. 한편 학술교류부는 2000학년도 1학기 교환해외연수자를 선정했다. 선정된 교환은 △이과대학 화학과 성용길교수(미국) △공과대학 전자공학과 김재공교수(영국) △정보산업대학 산업공학과 박준영교수(미국)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정태섭교수(일본)이며 내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6개월간 연수를 떠나게 된다.

“운동장, 언제든지 이용하세요”

사용신청 수시 접수 … 오는 28일부터

운동장 사용신청 방법이 오는 28일부터 변경된다. 관리처(처장=김종욱) 관제과는 매일 1일에만 접수해 당월에만 사용 가능했던 운동장 사용 신청을 수시로 접수해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 방식이 주말에 외부 단체나 기관이 운동장을 사용해 학생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것을 감안, 오는 6월부터 예약접수한 경우에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관제과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방식은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줌으로서 학생들의 많은 이용을 도모한다”고 말했다.

항공승무원·일반 면접대비 특강

정보산업연합회 이용태회장 강연

항공승무원 및 일반면접을 대비한 특강이 오는 28일 학림관 소강당에서 개최된다. 국내외 항공사들의 하반기 승무원 채용계획에 맞추어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국내외 지원 가능한 항공사별 정보 및 준비사항과 면접을 대비한 화법, 자세, 이미지 연출법 등을 내용으로 오후 2시부터 2시간동안 진행된다. 한편, 오는 28일 오후 6시 90주년 기념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선진국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주제로 정보산업연합회 이용태 회장이 강연한다.

‘대학생의 낭만과 문화’ 심포지움

음주·흡연·성의식 문화 주제로 … 다음달 1일 개최

학생생활상담센터(소장=정진환·교육학)는 오는 6월 1일 오후 2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대학생의 낭만과 문화”를 주제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술·담배·성(性)의 세가지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는 이번 심포지움은 △대학생의 음주문화 △대학생의 흡연문화 △대학생의 성의식과 문화로 나누어 하나의 주제당 한시간에 걸친 강의와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진다.



“과연 무엇을 위한 대동제였나”

상업성 이벤트 붓물·참신성 부족·학생참여유도 실패

이번 대동제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채 막을 내렸다. 화려하지 못한 축제였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축제였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치러진 대동제. 모두가 하나되는 장이라는 이름이 부끄럽게 일관된 기조 없이 산발적인 이벤트가 주를 이뤘다. 물론, 학복위에서 개최한 대동동약장터나 생자대의 우리밀 먹기, 민가өл 주점등은 나름대로의 의미

를 갖고 있었지만 이들 만으로 위안을 삼기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 이번 축제의 문제는 상업성 이벤트, 참신성 부족, 구성원들의 무관심으로 정리될 수 있다. 본교에서는 학생회를 중심으로 코카콜라 불매운동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축제에서 생협을 통해 코카콜라 회사 제품인 파워에이드 시음회가 실시됐고, 광고학과 소모임인 NEO-AD에서는 코카콜라 회사

로부터 후원을 받아 코카콜라 빨리먹기 대회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총학생회에서는 011·017·018 등의 상업성 이벤트를 허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총학생회는 올 학기 초부터 학내 실행위 근절 운동을 펼쳤었기에 이러한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공과대의 한 학생은 “원흥관에서 수업을 듣는데 SK 텔레콤 가관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지장이 많았

다. 학생들이 하는 공연이면 모르겠는데 상품홍보 때문에 수업에 지장을 받으니까 화가 난다”고 말한다. 축제의 참신성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예년에 비해 특별히 달라진 것 없는 축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학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실제로 물풍선 던지기 등 매년 반복되는 이벤트가 동국관 지역, 팔정도, 학생회관 지역 할 것 없이 똑같이 실시돼 대하축제다운 기발

함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더구나 동전던지기 등 ‘아시장’에서나 볼 수 있는 이벤트(?)가 등장하기도해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학생복지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모습은 단위 학생회의 자질부족에 기인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대동제의 기조가 공유되지 못해 중앙과 단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어쨌든 새내기들은 이번 축제를 통해 대학에 대한 남은 환상을 깨닫기 위해 버렸을 것이다. 참신하지 못한 행사, 화려하지 못한 행사였기에 그렇기도 하지만 축제를 치르는 이들에게서 ‘대학’이라는 단어를 쉽게 떠올릴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남대철 기자
 eniac97@cakra.dongguk.ac.kr

학생회, 단과대별 모집에 반발

문과대, 천막농성 실시 … 모집단위결정은 오는 7월

2000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과대학별 모집방안이 발표되자 학생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25일 명진관 앞에서 ‘일반적인 학재개편반대 결의대회’를 갖고, 25일부터 3일간 명진관 앞에서 ‘학부제 철폐를 위한 투쟁본부’를 설치해 천막농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에 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 오종진 위원장은 “학교측이 추진하고 있는 학부제는 교육환경 개선, 교수 충

원, 교과 개편 등이 선행된 후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며 “이러한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인 학재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총학생회 역시 학부제 확대 저지를 위한 반대시위를 열것으로 보인다. 오는 25일에는 단과대차원의 학생총회를 열어 각 단과대에 맞는 발전안과 학생참여 보장을 요구할 것이며, 이후 학부제의 부당성에 대

해 알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개혁종합관리단의 한 관계자는 “모집단위광역화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학생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무위원회와 학과주임교수회의, 단과대학교수회의를 거쳐 결정할 사안이므로 일방적인 학재개편이 아니다”라고 말해 입장차이를 보였다. 한편, 모집단위결정은 오는 7월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역경원, 책완간

역경원(원장=김성구)은 지난 20일 ‘어제소요영’와 ‘어제비장전’을 번역·완간했다. 두 책은 모두 중국 송나라의 태종이 지은 것으로 ‘어제소요영’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할 것을 설명한 책이다. 또한 ‘어제비장전’은 일종의 불교 시집으로 대승불교에서 설교한 교리의 뜻을 해석·찬양한 것이다.

원충, 26일부터 봄학술제 개최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석중·임학박사과정 3학기)는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99대학원 봄 학술제’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제는 △원우들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학술제 △세미나팀 활동제 △총학생회가 항상 원우들 옆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조로 총 13개팀이 참가한다. 발표되는 주제는 △금강산 그림의 전통과 변형 △부작위법 요건에 관한 고찰 △‘사이버 스나이’의 현

실태와 대책마련 △임체음향구현에 관한 연구 △인도불교연구사를 통한 본 과거의 정점들 △경제학에서의 ‘호환성’ △다자간 반부패협상에 관한 연구 △정치범죄 연구의 필요성과 그 유형 △도시설계지도상의 건축현황실태에 관한 연구 △민족·문화사·문학이론에 대한 고찰 △직업공무원제와 개방형 공직시스템의 상호문제 △지구자원의 산림환경문제 △제3자용 섬유의 화학적 개선을 통한 습윤강도 발현 등이다.

99학년도 교환학생 선발

- 파견기간 : 99. 9. ~ 2000. 8. (1년간)
- 해당 대학별 선발인원 및 지원자격

파견국	파견 대학	선발인원	지 원 자 격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5	현재 학부 3학년(5학기)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이상이고 TOEFL 550점 이상 취득자로서,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중국	남경대학	2	현재 학부 3학년(5학기)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 이상이고 중국어로 정규과정 수하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대만	중국문화대학	2	현재 학부 3학년(5학기)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이상이고 러시아어로 정규과정 수하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키르기스스탄	국립종합대학	2	현재 학부 3학년(5학기) 재학생으로 평균평점 3.0이상이고 러시아어로 정규과정 수하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 수확조건
- 가. 본교측
 - 파견자는 매학기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본교는 정학생 선발규정에 의거한 해당자에 한해 해당학기 수업료의 반액(미국·미시간주립대학 경우 수업료 전액)을 면제
 - 학점인정(취득과목명, 학점, 성적을 그대로 인정) - 졸업학점의 1/4 범위내

나. 해당대학측

파견국	파견 대학	수확조건	비고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수업료 및 기숙사비 재비 부담	·수업료: 학점당 약 \$200 ·기숙사비:학기당 약 \$2,000
중국	남경대학	·등록금 및 기숙사비 10% 면제	
대만	중국문화대학	·등록금 면제 ·기숙사비 재비부담	
키르기스스탄	국립종합대학	·등록금 면제 ·기숙사비 면제	

- 신청서류

가. 해외 자매대학 교환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재학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TOEFL성적표 1부 - 미국 미시간주립대학 지원자에 한함
- 선발방법 : 공개시험 전형(해당대학별로 상이함)

가. 학교성적 20% 나. 해당국어 필기시험성적 20%
다. 해당국어 회화시험성적 20% 라. 일반면접 40%
-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접수) 기간 및 장소 : 99. 5. 24(월) ~ 6. 1(화), 본관 2층 학술교류부
나. 전형일시 및 장소 : 99. 6. 4(금) 14:00~, 서울캠퍼스 본관 1층 C102

서울캠 연구교류처

동국참사람 인증 교육 제3기생 추가 모집

- 동국참사람 인증제 란?

본교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특성화 교육을 시킨 후 우수한 성적으로 교육을 이수한 학생에게 학교가 인증서를 수여하여 보증하는 제도로서 학생 본인에게는 올바른 가치관과 덕성을 함양케 하고 사회에서는 동국대학교 학생을 우수한 인재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본교는 이 제도를 통해서 기업의 국제화, 정보화에 발 맞추고 21세기의 고도 정보화, 세계화 사회를 선도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최고의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사회에 배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교육과정 : 인성교육(1주간 공동체생활), 사회봉사활동, 외국어(영어)교육, 컴퓨터교육 (세부 교육 내용은 상담 시 안내)
- 교육기간 : 99년 9월 ~ 2000년 8월 (1년간), 학기 중 교육(평일 오후6시부터 2시간씩)
- 모집인원 : 17명
- 전형일정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5. 24(월) - 5월 27일(목) 09:00~17:00
나) 원서접수장소 : 본관 취업과
다) 면접일시 및 장소 : 99. 5. 29(토) 10:00~
- 합격자 발표 : 99. 6. 3(목) 취업과 게시판 공고
- 응시자격

가) 99학년도 3학년 재학생(5학기 등록) 중 평점평균 B이상인 자로서
나)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다) 2000년도 하반기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제출서류

가) 지원서(소정양식) 1부. (취업과 교부)
나) 학과주임교수의 추천서(소정양식)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통(남학생에 한함)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1기생 참사람 인증 수여자 전원 취업

※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학생처 취업과☎ 2260-3054~5)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문의할 것

서울캠 학생처

출자금 배당

- 배당 기간 : 99년 5월 24일 ~ 12월 31일

배당 내역

구분	출자금원	배당율	배당액	비고
학부생	1학년(99학번)	10,000원	없음	1999년 1학기 출자
	2학년(98학번)	〃	10%	1,000원 1998년 1학기 출자
	3학년(97학번)	〃	20%	2,000원 1997년 1학기 출자
	4학년(96학번)	〃	20%	2,000원 1996년 2학기 출자
대학원생	석/박사 1학기	〃	없음	0 1999년 1학기 출자
	석/박사 3학기	〃	10%	1,000원 1998년 1학기 출자
	석/박사 5학기	〃	20%	2,000원 1997년 1학기 출자

- 배당 장소 : 상록원 1층 카운터, 생협 사무국(혜화관 1층)

- 배당 방법 : 학생증 IC카드에 유인출전

※ 무인출전기에서는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 사항

- 회계 연도 단위로 배당하오니 늦어도 99년말까지는 꼭 배당 받으시길 바랍니다.
- 현금배당은 하지 않으니 필히 IC카드 학생증을 지참바랍니다.

- 문의처 : ☎ 2260-8951~3, FAX 2271-3129

E-Mail : dgucoop@cakra.dongguk.ac.kr

서울캠 생활협동조합

재학생신체검사

재학생의 건강 증진,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치료로 건강한 대학생활을

하기위한 기본적인 건강 검사인 99학년도 재학생 신체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 99. 5. 24(월) ~ 5. 26(수), 3일간

- 장소 : 본교 보건소

- 검사항목 :

가. 혈액검사 - 간기능검사(GOT, GPT), 빈혈검사(헤마토크리트,

헤모글로빈), 간염항원·항체, 콜레스테롤, 혈당

나. 소변검사 - 당, 단백, 질염

다. 흉부엑스선촬영

라. 치과검진(치과의사검진)

- 대상자 : 재학생 전체(신입생 제외)

- 비용 : 무료

서울캠 보건소



신묘역의 모습. 유가족들이 두고간 꽃들이 놓여있다.



신묘역에서 구묘역으로 통하는 길에 사진전이 열렸다.



유가족들의 이름은 아직 아물지 못했다. 김기재 행정자치부 장관이 기증한 화환이 유가족들에 의해 부서져 있다.

99년 5.18에 아픔의 현장 광주를 가다

“그곳에 열사정신이 살아있다”

먹구름이 가득한 하늘에 금방이라도 폭우가 쏟아질 것 같던 지난 18일 오전, 80년 5월의 역사 현장을 찾아 카메라 가방 하나를 둘러메고 전라도 광주행 버스에 올랐다.

4시간 30여분에 걸친 광주행 길 도중에 내린 보슬비는 마치 아픈 과거속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국민의 눈물같았다.

광주로 들어서는 입구. 지난 80년 핏빛고를 광주를 연상케 하는듯한 ‘빛고을’이란 상점 간판이 유난히도 눈에 많이 띈다. 터미널에 다다랐을 때 도로 한가운데에 걸려있는 5.18기념행사 및 망월동 버스 노선 안내 현수막이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에 필력인다. 터미널에 내려들러본 주변 벽면에는 온통 5.18 행사 자료로 뺄뻣하다.

망월동 묘역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 광주 시내 중심부를 지나칠 무렵 피로 얼룩진 거리 금남로에 이르게 되었다. 5.18행사를 위해 차량이 통제된 도로위에는 수많은 인파가 모여 있었다.

벌어저가는 금남로를 뒤로한 버스는 점점 망월동 묘역에 가까워지고 저 멀리 ‘민주의 문’이라 적힌 출입문이 망월동 묘역을 찾는 유가족들을 맞고 있었다.

신묘역 주차장에서 출입문까지 이어진 길은 콘크리트로 깨끗이 잘 닦여 있었다. 입구에서부터 유가족들의 애환의 통곡소리가 들려왔다. 묘역 광장안 오른쪽으로는 열사들

의 위패를 모신 ‘유영봉안소’가 자리잡고 있었고, 그 옆으로 길게 이어진 추모비와 묘에는 유가족들이 다녀간 흔적을 고스란히 남겨놓고 있었다. 한쪽 묘에서는 아들의 묘를 찾아 온 듯한 노부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우리 아들녀석 잘있나 모르겠네. 편안히 보내야 할텐데. 그나마 우리 아들이랑 같이 묻힌 그 친구는 어디있더라”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묘비 여기저기를 살피는 노부부의 모습에서 세월은 흘렀지만 아직 아물지 않은 그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다.

한참동안 묘소를 참배하는 유가족들을 살피다 신묘역과 구묘역 길목을 안내라도 하듯 길게 늘어선 오색피를 발견하였다. 열사들의 영령을 달래기 위해 이어진 피를 따라가다 5.18 민중항쟁 사진자료 전시실로 들어갔다. 사진속의 참혹한 현장을 보고 모두 하나같이 혀를 끌끌 찬다. 수하여행을 온 듯한 교복입은 고등학생들의 모습도 간간히 눈에 띄었다.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사진을 유심히 지켜보던 한 학생이 “아, 이게 너무 심하지 않나? 어떻게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처참하게 총칼을 들이밀 수가 있지?”라며 안타깝다는 눈초리로 다른 친구에게 말을 건넨다.

사진 자료 전시실을 나와 오색피를 따라 비탈진 길을 오르니 좁 전

과는 다른 아담하고 밀집된 묘역이 나타났다. 구묘역이었다. 여기 저기 사진촬영을 나온 사람들과 유가족들, 그리고 참배온 이들을 위해 오전 내내 기다리고 있던 안내자들도 눈에 띄었다.

민주열사라는 이름만 남긴채 떠나간 선배를 찾아온 두 명의 여학생이 흐릿한 영정열 묘비위에 담배를 태워 꽃아주고 참배한다.

그들을 지켜보는 도중 갑자기 묘역안 스피커에서 총, 대포등의 폭음과 함성소리가 5월의 노래와 함께 울려 퍼졌다. 무거운 하늘아래 울려 퍼지는 노래소리에 사람들 모두가 귀를 기울인다.

언제 집을 뚫고 들어올지 모르는 대포와 총사격에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떨며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광주 시민들. 집안 벽면마다 겹겹이 붙여놓은 이불에 오로지 생명을 맡긴채 꼼짝할 수 없었던 그 당시의 참혹한 모습이 떠오르는 듯 하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도 이내 자리를 뜨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며 참배하는 유가족들의 모습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가슴 깊은 곳, 아물지 않은 유가족들의 상처와 묘역안에 맴도는 민중 열사들의 정신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미영 기자
dg19810273@mail.dongguk.ac.kr

동약로

성년의 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라디오에서는 한창 ‘박정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남, 북한의 경제, 문화적 교류를 지지했으므로 반공법에 의거해 ‘민족일보’를 폐간한다.”

4월 혁명이 끝나고 평화적 민족통일을 외치는 소리가 전국에서 한참 고개를 들무렵 박정희는 그렇게 그 꿈을 무너뜨렸다. 남북 학생회



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이 선봉에서 나서다 피를 흘리며 길거리에 쓰러지고 있었다.

이 시각 뉴스에서는 색다른 모습을 담아내고 있었다.

“성년식을 맞이한 대학생들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 지나는 행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대 대학생들의 음주문화가 과연 올바른지 할 수 있을지...”

성인식을 맞아 길거리에 주검처럼 널려있는 학생들의 모습

이 화면에 나타났고, 곧이어 다큐멘터리에서는 계엄군의 대검과 총탄에 길거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있는 학생들이 끌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5.16이 통일을 외치던 학생들을 탄압하고, 이때 태어난 아이들이 성년이 될 무렵 5.18이 일어나 학생들은 길거리에서 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쓰러졌다. 그후 20여년의 세월이 흘러 5.17성년의 날을 맞았지만 과연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진 학생들에게 5.18은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 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양영인 기자

빈민가를 찾는 의료 봉사 단체 ‘인과의’

“의술 아닌 인술을 펼치겠다”

“어디가 편찮으세요? 평소 앓고 있던 병은 없구요?”

인천 만석동 공단지역에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 의지할 곳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인근 노동자 등 넉넉지 않은 생활 탓에 병이 나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의술(醫術)이 아닌 인술(仁術)을 실천하는 사람들. 바로 본교 한의학과 봉사동아리 ‘인과의’에 소속된 학생들이다. 94년도에 권태식씨를 주축으로 한 이십여 명의 인원으로 서울 금호동 철거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한 이래 현재는 유지선(한의학·본과1년)씨를 비롯해 35명

의 회원들이 그 뒤를 잇고 있다.

이영옥씨는 “진료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사연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며 “정신적 충격에서 비롯된 질병의 경우 상담을 하다보면 사회의 경제난으로 전재산을 잃고 나서 얻은 합병증 경우가 많다”고 한다. 공단 근로자 대부분이 맞벌이기 때문에 이 지역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관심 속에서 방치되기도 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짜리 어린이가 본드흡인과 영양실조로 탈진한 일은 이들의 활동에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되었다. 빈민가 지역에서 환자들이 병을 얻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회성의 봉사활동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역 사회단체와의 연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지속적인 사회사업의 일환으로 인천 만석동 지역사회단체와 함께 ‘기차길 옆 공부방’이라는 청소년 교육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외부지원 없이 봉사활동을 이끌어나가다 보니 위중한 환자들에게 제대로 한약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고 한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우리 봉사활동의 초기단계라고 생각한다”



한 노동자가 학생봉사원에게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며 “앞으로 한의사 선배들의 참여가 이뤄지면 더욱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고 밝은 표정으로 답한다. 인과의 봉사동아리의 정신은 ‘질병을 고치는 것은 소의(小醫)요 사람을 고치는 것은 중의(中醫)요 사회를 고치는 것은 대의(大醫)임’을 각인하고 사회에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민중생존권이 보장받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몸소 인술을 실천하는 이들의 마음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이미숙 기자
ionia@cakra.dongguk.ac.kr

한총련 출범식 28일부터 30일까지

단결과 결의를 다지는 장으로

한총련 출범식이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치러진다.

백만 청년학생들의 단결과 투쟁의 결의를 다지는 장으로 꾸러질 이번 출범식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28일] ‘우리의 강물이 모여 한총련의 바다를 이루고...’라는 기조 아래 △지역별 결의대회 △조국통일 실현을 위한 남북 청년학생 모의 축구대회 △조국통일위원회 출범식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출범식 △한민다지기 한마당 △한총련 출

범식 개막제.

[29일] ‘꺼지지 않는 한총련의 태양은 눈부시다’라는 기조 아래 △부분마당 △출범식 본행사 △새내기 한마당.

[30일] ‘4천만 손을 잡고 가자! 항쟁의 거리로!’라는 기조 아래 출정식과 거리투쟁이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한총련 출범식에 정부의 원천봉쇄 등 강경대응이 예상되고 있어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부

옛날 프랑스에서 민중들이 빵을 달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왕비였던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느냐?”
결국, 민중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 왕비는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당신들은 민중의 아픔을 아십니까?

민중생존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대신문사



수배해제... 지난 21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김영삼 정권시절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조계사 농성단이 양심수 석방,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3천 배를 올리고 있다. 이들은 수배해제의 염원을 한배 한배 모아 오는 7월 4일까지 10만배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자연보존과 생명존중의 마지막 근거, 환경윤리 논단

환경문제에 대한 철학적 반성 필요

인간은 인간을 포함한 생명체 및 무생물의 자연에 대해 일정한 태도와 관계를 갖는다. 그것을 생명관, 혹은 자연관이라 부른다. 환경윤리는 생물학의 한 분야인 생태학에 관한 철학(혹은 윤리학)이 아니라, "생태계 위기, 환경 파괴에 직면한 인류가 생명가치, 자연물의 가치를 고양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생태지향적인 규범 설정 및 그 가능성과 타당성을 탐구하는 윤리학의 한 분야"로서, "기원의 규범적 이론과 원칙을 확대하여 동물보호, 자연보호, 환경보호의 원칙을 세우고, 나아가서 올바른 환경윤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환경 윤리교육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어 가는 새로운 연구 영역"을 의미한다.

환경윤리라는 말은 60년대 말에 처음 등장하였다. 68-69년 무렵 미국의 각 대학에서는 실용교육 운동가들의 주도하에 교육과정재정운동이 일어났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 단순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수준의 대학 밖의 논의가 아카데믹한 차원의 논의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간의 연구성과는 대체로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환경윤리학의 4가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이다. 인간중심주의, 의식중심주의, 생명(생물)중심주의, 전체론이 그것이다. 이런 입장 차이는 "도덕적 주체는 누구인가?", "인간은 자연계의 어

디까지 도덕적으로 배려해야 하는가?", "도덕적 의무가 없는 존재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태도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들 네가지 입장이 서로 남을 수 없는 분명한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둘째, 환경윤리 연구는 그동안 자명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도덕적 전통에 대한 반성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환경문제의 근본 원인은 서구의 종교적 신념, 특히 유대-기독교적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연을 착취의 대상으로 본 17세기 이후의 자연관, 특히 데카르트와 베이컨으로 대표되는 '재구성된 자연개념' 때문이라는 비판적인 태도를 불러 일으켰다. 초기의 환경운동가, 환경윤리학자들은 기독교, 근세 자연관, 그리고 그 적용인 과학·기술적 지식, 진보이념에 대한 비판이 환경운동과 환경윤리의 이념적 기초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전통을 무시하고는 어떤 바람직한 윤리도 주장할 수도, 성립될 수도 없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환경윤리는 전통에 대한 반성을 통한 '반성적 광명'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발전하고 있다. 린 화이트(Lynn White Jr.)의 기독교 비판은 일면적인 것으로 수용될 수 없으며, "너희들은 대지를 지배하라"는 베이컨의 창조적 계율은 자연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자연을 인간의 목적에 유용하게 활용하지는 의미이다. 또 진보이념과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위험을 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환경윤리 연구는 일 상에서 벌어지는 환경적, 생태학적 갈등상황을 매개하는 마지막 근거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구미(歐美)에서나 한국에서나 환경윤리보다는 환경운동이 먼저 시작되었다. 환경운동이 지배적이던 시기에 사람들은 환경문제를 산업과 상품 소비에 따르는 단순한 공해문제로 인식했다. 그래서 공해추방운동, 자연보호운동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환경문제에 대한 철학적 반성은 환경친화적 행위, 생태지향적 행위의 정당화 근거를 마련했다.

요즈음 등장법 건설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다. 등장과 어린 계곡을 보존하는 것이 '더 좋으나', 아니면 수몰시키는 대신에 홍수를 통제하고, 전기를 만들고, 농업·공업용수를 많이 공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나 하는 문제로 압축된다. 사실 심리적이고, 미적인 가치를 다른 산술적 가치와 비교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어린 계곡을 그대로 보존하여 1백년, 1천년 후의 후손들이 그 빼어난 경관을 감상하게 하고, 그곳에 다양한 생물 종이 계속 살게 하는 것이 좋은지, 전기를



구 승 회
문과대 윤리문화학과

만들어 후손들이 충분한 에너지를 마음껏 쓰게 하고, 서울 사람들이 홍수의 걱정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자연-미적 경험을 발충할 수 있을 것인지 는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관, 자연관 의 문제이다. 등장법 건설 반대는 이유가 자연과학적·기술적인 이유이든, 환경적·미학적인 이유이든 간에, 결국 '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으면 그 마지막 대답은 언제나 '윤리적 정당화'를 거쳐서 나오게 된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종의 다양성은 보존되어야 한다', '인간은 긴급한 필요가 아니면 자연을 마음대로 변형시켜서는 안된다'는 당위는 일단은 과학적,기술적 연구성과를 빌어 주장되지만, 과학적·기술적 지식만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고, 윤리화적인 반성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환경윤리는 자연과학적·기술적 지식에 의해 촉발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계, 자연계 상호간의 갈등을 최종적으로 정당화해 주는 환경친화적 행위지침이다.

본교, 팀제·연봉제 실시

“효율성만 강조한 기업 논리”

팀내 화합·대학 적용 가능케 보완돼야

본지 1272호에서 송석구 총장은 오는 7월 팀제와 연봉제를 중심으로 한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직원들은 팀제와 연봉제 실시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다.

팀제와 연봉제는 90년대 중반 신인사·신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실시되었던 제도이다. 팀제는 피라미드식 단계 계층구조로 되어 있는 관리층을 줄여 결재 라인을 신속하게 가동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 흡수된 기존 관리직원들을 실무에 투입함으로써 실무인력을 확충할 수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다. 흔히들 연봉제라고 부르는 성과급제는 말 그대로 능력별로 임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 역시 팀제와 마찬가지로 효율성 제고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이들 제도가 갖는 이러한 장점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중반,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붐'이 조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팀제, 연봉제 역시 어느 제도와

마찬가지로 단점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들 제도가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만큼 너무 경쟁 유발만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공동체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TV에서 팀제와 성과급제 실시로 인해 삭막해진 사무실의 분위기를 그려낸 드라마가 방영된 바 있다. 팀원간에 정보교류조차 하지 않고, 성과를 올리기 위해 상대방을 배척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을 때문에 팀제와 연봉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조작을 살리고 개인을 죽이는 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팀제와 연봉제가 별 다른 보완책 없이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11월 본교 교직원 1백4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가 학교 행정 조직이 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팀제 도입에 대한 질문에는 팀원간의 인화단절, 개인주의, 부서간 업무협조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게 나타났다.



결국, 개혁과 변화에는 찬성하지만 보완되지 않은 팀제 실시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팀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개인의 실적만을 인사고과에 반영할 것이 아니라 팀웍에 있어 기여도까지 평가에 포함시키는 것 등이 대안으로 제시 될 수 있다. 실제로 두산그룹은 95년 팀제·연봉제 실시 이후 보완책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팀제 자체가 갖는 문제와 더불어 본교 행정에 이 제도를 적용시키는데 있어 제기되는 우려는 기존 기업에 적용되어 오던 제도를 대학에 적용시키는 것이 과연 타당

한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백경선 노조위원장은 "팀제 실시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대학업무에 팀제를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대학은 수요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팀제는 경쟁력과 능률만을 지나치게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한다.

결국, 본교에 팀제와 성과급제 실시에 전제되어야 할것은 이 제도들이대학의 특성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대철 기자
enlac97@cakra.dongguk.ac.kr

사설

노동자는 ‘봉’이 아니다

역사를 통해 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민중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IMF라는 위기를 맞아 노동자들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했다. 고통분담이라는 명목하에 정부는 정리해고를 추진했고,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이 수 밖에 없었다. 그것이 대의고, 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누군가가 우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됐다. 최근 한국생산성본부가 발표한 '실업이 노동생산성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극심한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출량 감소(7.2%)보다 노동투입량의 감소(13.2%)가 더 급격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필요 이상으로 대량해고가 이뤄진 것이다. 역시 고통분담이라는 말은 명목뿐이고 힘있는 사람들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 넘기고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기고 있음이 증명된 셈이다. 하지만 현재 모습은 여전히 고통을 떠맡아 힘겨워하는 노동자들을 더욱 더 질책해 보다 많은 고통을 줌에 지우려는 모습이다.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무언가가 잘못되었기에 우리는 이 난국에 봉착했고 그렇기에 무언가를 바꿔야 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 변화때문에 힘있는 자들과 민중들의 삶이 점점 격차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불균등한 고통분담 탓이다.

실제로 지난 3월 실시된 생활지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계층구조가 양극화되고 중산층이 완전히 해체되어 여유를 누리는 계층과 고통을 받고 있는 계층이 20대 80으로 나뉘었다는 결과가 나왔다. 민중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도 값비싼 유명브랜드의 판매가 30%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이를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소위 '힘' 있는 자들은 민중들을 봉으로 보는 듯하다. 잘 나갔다는 자신들끼리 배를 채우더니 이제 어려우니 민중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그들의 감언이설에 속아서는 안된다. 민중들은 더 이상 '봉'이 아니다.

5·18과 5공 세력

해마다 광주시민들이 느끼는 5월은 남다른 것이다. 올해도 지난 18일 광주를 비롯한 전국 여러 곳에서 수천 명의 추도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추모식은 이제 과거의 한풍이 식 차원의 행사가 아닌 민주 영령들의 뜻을 계승하고자 하는 차원으로 승화된 잔치였다. 이는 이 땅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자취를 남긴 이들의 명복을 비는 간절한 기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로 돌아가면 가해자였던 5공 인사들은 지난날의 과오는 망각한 채, 재기의 욕심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전두환 전대통령과 노태우 전대통령은 역사에 길이 남을 죄인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측근들의 정치세력화에 배경이 되고 있으며, 현 집권 세력들도 이들을 이용하여 내년 총선에서 영남지역의 민심을 끌어안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과거의 가해자와 현 집권 세력들의 이러한 행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며, 송고한 광주 영령들에 대한 모독일 수밖에 없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광주민주화 운동은 6·25 사변 이후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아픔이었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현실자체이다. 때문에 당시 원흉들이 자유롭게 활보하고 다니는 것이 더욱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이유일 것이다. 지금도 그 때 입은 상처의 고통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함께 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광주의 아픈 상처들이 잊혀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조차도 45% 이상이 이제 그만 거론 하지도 답했고 고통학생 이하의 비율은 이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 광주민주화 운동이 역사책 속에서나 서술된 단순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인식하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날의 의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오늘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는 한,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양영진

부주 김규환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다경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하이텔·나우누리 ID dgpress 천리안 ID dgupress

구독문의 : (02)2260-3491·2

서울캠퍼스 (우)100-716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7가 26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2)2260-3491·2

팩스 (02)2278-1270

전화 (0661)770-2058

팩스 (0661)770-2057

99 상반기 대의원총회

1. 일시 : 99년 5월 27일(목)

2. 장소 : 중앙강당

3. 참가대상 : 대의원(학련대표, 전공대표, 반대표)

4. 안건

1) 총대의원회 사업보고

-새내기새로배울터 부정이 감사 결과보고

-99 미션저 지역 선거 결과보고

-상반기 특별감사 결과보고

-상반기 예산분배를 위한 소위원회 활동보고

2) 대의원회의 이해를 위한 교양

3) 총학생회 회칙 부분개정 의결

4) 학생운동통합에 대한 연서 결의

서울캠 31대 총대의원회

여성학 생활도서관 개관

드디어 동악에서도 여성학 생활도서관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성학 생활도서관은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접하지 못하는 여성학 관련 서적이나 논문, 정기간행물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과학·철학·문학 서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열람과 대출 모두 가능하며, 편안히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1. 자격 : 동악인 모두(학생증이나 그 밖의 신분증 지참요)

2. 개관일시 : 5월 17일 10시이후

3. 이용시간 : 10시부터 18시까지

4. 장소 : 학관 1층 총여학생회실

5. 문의 : ☎ 2260-3614

※ 학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바랍니다.

서울캠 13대 총여학생회

고시장학생 선발시험

1. 일시 : 99. 6. 26(토), 09:00~12:00

2. 장소 : 고사당일 계산고시학사 게시판에 공고

3. 대상 : 본교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4. 총 선발인원 : 60명(수업료전액 : 30명, 반액: 30명)

5. 시험과목

시험구분	학	년	시	험	과	목
사법시험	2	3 / 4	1	헌법, 외국어		헌법, 형법, 민법총칙, 외국어
			2	헌법, 민법, 형법, 외국어		
			3 / 4	헌법, 민법, 형법, 외국어		
행정고시	2 / 3 / 4		1	영어, 국사		영어, 헌법, 국사
			2 / 3 / 4	영어, 헌법, 국사		

※ 사법시험 외국어는 영어, 독어, 불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 택일

6. 원서접수 : 99. 5. 24(월) ~ 6. 2(수), 09:30~17:00, 계산고시학사 사감실

7. 합격자 발표 : 99. 7. 7(수)

8. 주의사항 : 시험당일 응시원서 및 신분증 지참

국가고시 입문특강

1. 과목별 일정

과목	담당교수	일	시	강	의	실
헌법	정연주	5.26~27	(18:30~21:30)	동국관	L401	
민법	연기영	6.3~4	(18:30~21:30)	동국관	L401	
형법	심회기	6.21, 23	(18:30~21:30)	동국관	B5C(멀티실)	

서울캠 고시지도위원회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99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1. 대상자: 99년 8월 졸업예정자 중 사범대학생 및 비사범계 교직과정 이수자

2. 자격

1) 학적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2) 사범계 : 교직과목 22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 이수자

3) 비사범계

① 교육부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그 명단이 제출된 자

②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응과목 이수자라

3. 접수기간 : 99. 6.2(화) ~ 6.4(금)

4.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5. 교부 및 접수처 : 사범대 교학과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대상자는 유의하기 바람

서울캠 사범대 학장

동국의 공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마다 공간배분을 둘러싼 학생과 학교측의 갈등은 계속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지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본 지면에서는 학내공간 부족 현상을 짚어보고 한정된 공간에서 좀더 효율적인 활용방안과 시설확충을 모색하고자 2회에 걸친 시리즈를 싣는다. 이번 호에는 5월 10일자 학습공간에 이어, 생활복지시설 점검과 공간활용을 위한 제언을 한 후 시리즈를 마친다.

편집자

서울 캠퍼스

학생자치공간

“분산된 학과 학회, 세미나실을 모아서 공간활용의 효율성을 높이자”

체육시설

“‘갈곳이 없다’ 불멘소리 해소할 체육시설 확충과 개방 요구돼”

복지매장

“생협 활성화 통한 다양한 여론 수렴을...”

문화예술공간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 못해 ...개방시간 연장 필요”

공간활용, 아·나·바·다 모색할 때

지난해 말 상록원과 정보문화관의 완공을 앞두고 학내 공간 재배치 논란이 있었다. 강의실 부족은 물론 이거니와 자치공간이 아예 없는 학과 등 새로 지어진 건물 완공으로 자치공간에 대한 갈증 완화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정보문화관이 개관하면서 정보산업대학 앞으로 학생회실 등 3개의 공간이 배치되었으나 학회실과 소모임들을 비롯한 본교 학생자치공간을 둘러싼 문제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기존 학과체제에서 학부체제로 바뀌면서 학과·전공이 결정되지 않은 1·2학년들은 하나의 학부·계열실에서 생활하고 있다. 30여명의 학생들이 들어

가면 딱 차버리는 학부실이 3백여명도 더 되는 인원의 자치공간이다. 이러다 보니 학부실을 이용하는 학생들만 이용하게 되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용을 잘 안하고 있다. 학교측은 현재 2000학년도 신입생 모집단위를 단과대학별로 확대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미술학과나 연극영상실기·기술 등 특수학과를 제외한 전학년 통합 모집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측의 모집단위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에서 조각조각나 있는 학생자치공간들은 그 효율성이 저조할 것임은 물론이다. 이러한 변화 흐름에도 학교측은 전체공간 재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책이 마련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공간문제의

그러나 7월 중순경에는 만해광장에 농구코트 2개, 족구코트 2개, 농구대 6개가 들어서게 돼 사용이 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교내 체육관은 1층에 농구장과 락커룸이 있고, 지하에는 트레이닝실, 유도장, 태권도장, 무용실, 체조실 등이 있다. 그러나 이곳은 체육교육과 학생들과 특기생들만이 사용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학생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관리의 어려움으로 수업과 대회 결승전 정도로만 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대와는 수영장, 탁구장, 스쿼시장, 테니스장,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다양한 종류의 운동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특히 이화여대의 수영장은 본교 수영장이 여름에만 운영되는데 비해 연중 이용이 가능하며 학생

해결 조짐이 보이질 않고 있다.

학생 자치공간의 의미는 학생회실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다. 모든 학생들이 함께 쉬며, 여러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각 학과 및 소모임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간은 그 효용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의 부담없는 이용을 방해한다. 따라서 보통 각 단과대 마다 4·5개로 나눠있는 학과, 학회, 세미나실 등을 한데 모아 공용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 소모임 활동 및 세미나를 진행할 경우 시간대 별로 신청하여 유동적인 공간 활용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현 동악의 실정에서 전면적인 공간 재배치 문제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생활과 바로 직접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 만큼 각 구성원들간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인 만큼 학교측의 일방적인 행정은 없어야 할 것이며 학생을 비롯한 각 구성원의 의견을 모아 함께 논의하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r

들의 이용도 활발하다.

또한 한국외대는 탁구장을 마련해 학생들이 공강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헬스장에 일반학생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운동장과 수영장, 체육관이 전부이고 일반학생들의 사용 또한 어려운 실정인 본교는 많은 체육공간 확보가 시급하다. 관제과의 한 관계자는 “체력단련실과 매트실, 에어로빅실을 갖추고 락커실과 샤워실, 관리실 그리고 병·난방 시설까지完비한 학생체육공간 마련 계획을 구상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생활공간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의식수준 고양이 또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인식의 전환이

을 강화하여 활성화 시키는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소를 살펴보면 평소에는 간호사 1명이 관리하고 일주일에 한번 보건소장이 출근하는 운영체계로는 학생, 교직원을 비롯한 구성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기에 모자란 면이 많다.

구체적인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한 복지매장의 확대나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지난 17일 열린 생협 긴급이사회에서 학생회관과 학림관, 정보문화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한 후문 근처 매점건립을 학교측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앞으로 이 지역 매점건립 항방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다.

김진아 기자
ring@cakra.dongguk.ac.k

가장 적합한 공간이다. 그러나 현재 다량관 학생식당의 폐쇄와 관련해 다량관 전체를 학생복지를 위한 전용공간으로 하기에는 식당자리를 두고 산학협동 연구센터나 제2도서관 건립 등 쟁쟁한 후보(?) 공간이 줄을 서고 있어 현실적으로 복지매장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지배적인 생각이다. 또한 현 시점에서 다량관 2층 보리수 매점을 반으로 축소한다는 학교측의 방침은 그나마 학생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축소하는 격이 되었다. 이와 관련해 관제과의 김계현 계장은 “절대공간부족을 탓할 일만은 아니다. 공간활용에 대한 심도있는 고민으로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말한다.

따라서 현재 학내복지를 담당하는 기구들의 기능

용은 불가능하다. 학생회관의 연화원도 일반 학생 보다는 동아리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야외 공연장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먼저 불상 앞의 경우 면학분위기 조성에 어려움이 따른다며 특정 행사 기간을 제외하고는 이용을 금하고 있다.

일반 학생들은 이용할 수 없다고 인식돼 있는 강의실의 스크린, 모니터, 마이크가 일반 학생들도 관리처에 신청만 하면 사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학생들의 무관심과 학교의 홍보 부족으로 가까이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것이다.

동국관 5층의 휴게실에 있는 CNN뉴스 시청용

본교 복지매장은 생활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다량관 지하 1층에 있는 잡화점, 안경점, 문구점, 서점과 보건소가 전부이다. 하지만 약국, 미장원, 매점 등 더 다양한 복지매장이 건립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지하 서점의 경우 창고 3개로 서적을 순환하며 운영하고 있으며, 1만 2천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을 수용하기에 크기가 매우 작은 형편이다. 서점이 제대로된 복지매장의 수준을 갖추려면 좀더 넓은 공간에 테이블을 설치해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을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 한 생협 관계자의 말이다.

캠퍼스가 산지형인 본교의 경우 정상에 위치한 본관과 도서관 사이는 학생들의 이동이 가장 빈번한, 그야말로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쓰이기에

“학술문화관 전시실은 이미 사용중이고, 또 학생회관 연화원은 이미 예약돼 있네요.”

미술전시를 앞둔 한 학생의 푸념이다. 그러나 이 말은 그냥 못어넘기기에는 뭔가 꺾끄럽다. 그만큼 전시실과 공연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먼저 교내에 있는 공연 장소를 살펴보면 학술문화관의 소극장, 전시실, 학생회관 5층 소극장, 연화원, 학림관 소극장, 본관 중강당과 불상앞 등의 야외공연장이 전부다.

그러나 이나마도 학술문화관 소극장은 연극영상학부 전용 연습공간이기 때문에 일반학생들의 이

을 달아 강의가 끝나면 이용을 할 수 없으며 짧은 개방시간 탓에 이용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아무리 개방시간을 늘려준다고 해도 건물 폐쇄시간에 부딪혀 제구실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이용이 낮은 이유도 있겠지만 효율적인 공간과 시간의 배치로 불편을 줄여야 할 것이다. 편의를 위해 만들어놓은 설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

학내에 쉴 곳이 없다!

서울캠은 각 건물마다 마땅히 실만한 장소가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건물마다 각각의 휴식공간이 있다고 여길지 모른다. 그러나 사실 식당을 제외하면 그 역할의 많은 몫을 담당해 왔으며, 휴식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동국관 5층 휴게실과 혜화관 옥상, 도서관의 휴게실, 여학생 부처의 휴게실뿐이다.

현재 공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사

례로 손꼽히는 곳은 혜화관 옥상의 다락방 매점이다. 경시대 서울캠퍼스의 경우에도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옥상을 체육과 휴식공간, 공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한다.

본교도 혜화관 뿐만 아니라 정보문화관과 상록원 옥상의 활용방안을 잘 모색해 공간부족해소에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굳이 모든 옥상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계단이나

경주캠

△노천강당= 54평 △동아리 연습실=21.5평 △전시실= 39.5평 △교육매체실 =50평 △옥야실 40평... 이들 온방끝내 몇 개 안되는 문화공간 가운데도 학생들에게 알려지지도 않았을 뿐 더러 이용율이 저조한 곳도 있다.

학생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공연장소를 얻기 위해 학교측에 요구하다 94년 7월에 완공된 노천강당은 관람석까지 포함해 2백여평에 이르고

본교는 학생들의 복지를 얼마만큼 충족시켜주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과연 학교측은 어떤 대답을 할까? 그러나 학생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와 학외

“모든 학생이 공간 시간에 맞춰 체육관을 이용할 기간 가뭇에 공나는 격이다. 그렇다고 수업을 뒤로한 채 여가만을 우선시 하는 것도 문제가 되니 결국 공간부족이 먼저 해결돼야 학생들의 불만이 수그러들 것 같다”고 말하는 한 상경대 학생의 말처럼 실제로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전체 35교시 중에 △

식당 겸용으로 사용되는 휴게실을 포함한다면 건물별로 휴게실이 있긴하나 어느 휴게실을 둘러봐도 금연장소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하루 평균 2천여명의 학생들이 찾는 학생회관 지하 휴게실의 경우 158평으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올해 초에 새롭게 페인트칠을 하고 좌석 및 테이블을 새롭게 마련해 현재는 150여개의 좌석수를 갖추고 있으며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그러나 한 복지매장 관리자는 “대학생답지

활동을 할 수 있는 동아리 공간의 부족은 점점 심해져만 가고 있다.

동아리방을 소유하고 있는 동아리는 공간이 좁아 공간을 확대하거나 넓은 곳으로 이주해 달라고, 동아리방을 소유하지 못한 동아리는 공간을 확보해 달라고 요구한다. 이는 학생회 또한 마찬가지다. 과거 인문대학생회는 “인문대 학생이 원호관에 주로 상주하는데 학생회관에 있는 학생회는 원호관으로 옮겨야 한다”며 4.19등반대회때 기습적으로 점거해 들어간 적이 있었다. 도서관도 정보검색실을 제외한 1층과 2층이 행정기구로 편성돼 있어 시험기간에는 도서관 좌석 차지하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이런 경주캠 공간부족의 근본적인 문제는 본관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공간부족을 해결하기위

월요일= 7,8,9교시 △화요일=4교시 △목요일=7,8,9교시 △금요일=4교시까지 더해도 고작 8시간에 불과하다.

체육시설로는 체육관내 설치된 시설물인 △지하1층—유도장(동국유도부에서 관리) △지상 1층—탁구장, 농구대, 배구대, 헬스실(이상은 체육관 관리실 및 사회체육학과에서 관리) 등이 있다. 이외에도 테니스장, 대운동장에 마련돼 있는 농구대, 소운동장에 야구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체육관의 경우 주말에 동아리나 단체에 대여를 해준다.

특히 지난해부터 학내 구성원들의 체력 단련을 위해 체육관내 20여종의 기구를 갖춘 헬스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하루평

못하게 테이블위에 발을 올려 놓거나 바닥에 침을 뱉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며 “평시 간대에는 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을 생각해 깨끗하게 사용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쓰레기통에 담겨져 있는 쓰레기에 비해 밖에 떨어져 있는 양도 상당하다.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이하 총여) 바로 옆에 위치한 30여평의 여학생 휴게실은 여학생들을 위한 사물함이 설치돼 있고, 피아노, 포켓볼, 체력단련 기구 등을 구비해 놓고 여학

휴게실

“옥상이나 건물 귀퉁이 등의 공간발굴 필요”

건물 중앙의 홀 등을 조금만 더 신경써서 편안한 자리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 효율적인 이

문화예술공간

“다양한 기획전시전·공연 등 학생이용도 높아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거의 희망이 없는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의 요구끝에 어렵게 얻어낸 결실이라면 지금이라도 문제점들을 하나씩 보완한다면 온방끝내 최상의 문화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아리나 단체의 공연 및

학생자치공간

“구성원간 논의 활성화로 대체공간을 찾자”

해 본관 설계가 이미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설계가 어느정도 진척되어 있는지, 언제 착공식을 할건지, 완공일정이 언제인지는 전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학교측의 한 관계자는 “본관으로 이전할 행정기구가 대부분 결정됐다”며 “본관으로 이전한 행정기구의 공간을 어느 기구가 다시 들어올 것인지가 논의가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한편 현재의 공간효율을 억제하는 요인도 많이 있다. 우선 강의실 부족은 강의시간표 설정

체육시설

“강의공간 확충 통한 본래의 취지 살려야”

군 이용자 수는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규정상에는 동국인이려면 누구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2학기에는 5시)까지 체육관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경주캠의 체육관은 사회체육학과(이하 사체과)의 강의실이 체육관내에 상주해 있어, 강의실 수업과 실습시간

휴게실

“남을 배려하는 공중도덕 의식을 갖자”

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으로 99평 크기인 도서관 휴게실은 하루 1천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테이블 17

용을 피할 수 있다. 상록원의 경우 식사와 차를 마시며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한 것을 건물 옆 공터에 나무탁자와 의자를 배치해 많은 학생들의 반응이 좋다.

앞으로 본교처럼 좁고 한정된 공간에서 휴식공간까지 찾는다면 옥상이나 건물의 귀퉁이 공간 등의 새로운 공간발굴이 더욱 효과적이지 않을까.

양경인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각종행사의 연습실로 쓰이는 동아리 연습실은 이용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문화공간으로는 드물게 도서관에 위치한 125개의 좌석수가 있는 교육매체실은 매주 월·수·금요일에 오후 3시부터 비디오회 상영하고 있으며, 이용자수는 하루평균 20여명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내 문화시설 이용후 미비한 뒷정리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것을 볼 때 대학 지성인에 걸맞는 의식수준의 고양이 필요하다.

정희정 기자 dg19711782@mail.dongguk.ac.kr

에 그 원인이 있다. 화·수·목요일에 집중돼 있는 강의 시간때문에 강의실이 부족하다고 한다. 교수와 학생 모두 화·수·목요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의실에 냉·난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방학을 앞둔 시기와 개강 초에는 수업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학내의 면학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학교의 복지시설 투자미비와 학생들의 의식수준 미달 때문이다.

앞으로 산적해 있는 공간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간의 양보와 협조가 가장 바람직하겠으나 외부업체에게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배치계획을 의뢰해 그들의 지적에 따라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박양우 기자 dg19711437@mail.dongguk.ac.kr

에는 수업방해를 이유로 사용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때문에 한 학과에서는 “우천시 실내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시설을 망고고 사용해 보지도 못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체육관내 시설물 이용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체육관측은 “지난해부터 1,2,3,4학년이 한곳에서 수업을 받으려니 현재 3개의 강의실과 실습공간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공간 부족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학생들의 불편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측은 체육관을 본래의 용도에 맞게 학생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할 것이다.

대학부

개에 102개의 좌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식당과 휴게실이 연결돼 있어 소음과 담배연기 때문에 인해 식사를 하러온 학생들에게 불편감을 주기도 한다.

휴게실의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먹고 남은 찌꺼기나 쓰고 남은 쓰레기의 경우 그대로 방치한 채 자리에서 일어서는 경우가 상당함을 감안할 때 우선년부터가 공중도덕에 대한 의식개혁을 했으면 한다.

대학부

효율적인 공간활용을 위한 제언

캠퍼스 울타리를 벗어나자

연영과-총무로가 강의공간 ?!

‘1, 2 교시 수업을 마친 동국이는 고민을 한다. 어디로 갈까? 다음 수업은 4시간후에나 있는데 마땅히 가 있을 만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운동을 하고 싶어도, 공연을 보고 싶어도, 그럴 만한 공간이 없고,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어도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자리를 잡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처음 학교에 들어왔을 때에는 공간시간마다 친구들과 담구장이나 커피숍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젠 그것도 재미가 없다.’

동국인이려면 누구나 한 번쯤 했을 고민이다. 부족한 공간 탓이다. 서울캠의 경우, 교지확보현황을 보면 교육부 기준 면적에 비해 확보율이 39.5%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명진관(4천8백34평방미터)과 비슷한 수준인 임시강의동과 학군단부근의 약 4천8백62평방미터 정도인데, 이마저도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을 인한 고도제한때문에 12미터이상의 건축물은 지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처럼 수직적 팽창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에서 부지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그 역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본교의 공간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비효율적인 면이 여러 곳에서 지적된다. 서울캠 교사면적을 전체 학생수로 나눈 학생일인당 면적을 1로 하여 건물별 상대비를 보면 혜화관은 2.77, 정보문화관 1.45이나, 동국관은 0.59로 타건물에 비해 학생수가 지나치게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도서관이나 컴퓨터실과 같은 공간은 자리가 부족한 실정인데, 몇몇 학생자치공간은 사용인원수에 비해 크거나 거의 비어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본교 수업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서울시 소유인 이곳은 현재 본교에서 임대중인데, 1년 임대료를 모두 내고 있음에도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간 낭비가 심하다. 대운동장과 인접해 있는 점을 이용해, 탈의실이나 샤워실, 그리고 기타 체육시설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뿐만 아니다. 시간을 정해 식당과 공연공간을 함께, 강의실을 지정해 일정시간 이후에는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등 공간을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교문 안에 모든 건물이 다 존재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자. 미국의 경우,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로드아일랜드와 브라운대는 상대 대학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로드아일랜드는 브라운대학의 도서관이나 체육시설등을, 브라운대는 로드아일랜드의 박물관을 이용하는 식이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하게 교문의 개념을 파괴한 경우가 있다. 동덕여대가 그러하다. 디자인 대학은 패션의 거리라 불리는 로데오거리에, 미술학부는 대표적 화랑가인 인사동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공연예술대 또한 곧 동숭동 대학로에 옮길 예정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공간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현실과 접목된 특성화 교육도 가능하며, 실제로 학생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는 어떠한가? 전국 최고의 연극 영화학과를 자랑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도 주춤한 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영화의 거리인 총무로에 인접한 장점을 최대한 이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 주위 또한 게임소프트업체와 스튜디오, 영화제작사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업체가 8백여개나 모여있다. 뿐만 아니라 광고기획업체만 해도 1백개가 넘는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학생들의 인식공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과, 우리 것은 안돼.’ 라는 생각보다는 동국의 공간은 동국인들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다라는 공유의식의 확산이 절실하다.

박영실 기자 youngsp@cakra.dongguk.ac.kr

오늘의
주요
기사

장 애 령 (동대경주병원 간호사)

“짜투리 시간으로 환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보람”

35명의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하는 무료도서 대여

“짧은 시간에 환자들의 무료함을 달랠 줄 수 있는 일이 팔까 공리중에, 간호과장이 도서대여를 제안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선뜻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매주 금요일 오후 1시가 되면 36명의 간호사들이 조를 짜서 이방 저방 다니며 환자들에게 책을 대여해 주고 있다. 그 중에서 장애령 간호사를 만날 수 있었다.

“처음 책을 갖고 병실에 들어갔을땐 간호하러 갔을때만 달리 좀 어색하고 쑥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지도 몇번씩 생각하고 연습

하고 들어갔었더니깐요”라는 말에서 느껴지듯 그녀는 환자들을 위해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배려할 줄 아는 것 같았다.

대여해주는 책들은 간호과 직원들, 학교 교수·직원·학생들이 기증해 준 것과 또 환자나 보호자들이 집에서 가져온 책들이다.

“이젠 제법 환자들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요. 보호자들도 많이 읽구요. 어떤 환자는 불교병원에서 불교관련서적이 잘 보이질 않는다고 말해주기도 하구요” 또 “휠체어를 타는 환자가 직접 우릴 찾아와서 책을 대여해 갈 때,

보호자들이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볼때면 괜스리 흐뭇해 짐을 느껴요”

“우리 점심시간대를 이용해 이 일을 하죠. 그래서 점심을 급히 먹고 휴식시간에 각 층마다 다니죠. 이런 짜투리 시간이라도 내서 환자들에게 봉사하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몰라요” 간호하는 일만도 쉬운일은 아닐터인데 그녀들에겐 오히려 이일이 더 힘나게 해주는 모양이다.

“도서대여는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소아과나 산부인과는 저조한 편이에요. 하루에 총 40권에

서 50권정도 대여가 되고 있어요. 잡지, 만화, 소설, 문학잡지들이 주로 많이 대여되구요. 그런데 지금있는 책으로 많이 부족해요”라며 책부족을 호소한다.

“이젠 이일에 관심이 불어 품이 고달피도 혼자서 거뜬히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간호사란 직업을 택한 데 만족하고 더불어 이런 작은 봉사활동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다행한 일이라 생각되네요” 자기가 있어 다른 사람이 즐거울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또 있을까?

〈리〉

dg19914853@mail.dongguk.ac.kr

발언대



박 찬 정
(서울캠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지난 5월 18일 동국대학교 생활협동조합 이사장실에서는 교수·직원 및 학생이 사 1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학내 식당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이사들이 공감한 이야기는 공과대학·정보산업대학·사범대학을 포함하는 후문지역 소재 학생들의 열악한 복지환경에 대한 문제였다.

후문지역이 주생환경인 학생들은 복사실과 캔·음료로 자판기 이외에 딱히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우유, 빵 등의 간단한 간식류 뿐 아니라 필기류 등의 학용품까지도 학교 밖에서 비싼 가격에 구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침에는 후문 앞 교통혼잡으로 인해 명동의 변화가를 지나듯이 등교하고,

후문지역 4천여 학생들의 윤택한 복지를 위해 정보문화관 건립에 따른 각 구성원의 의견 반영 필수

매 끼니때마다 선택의 여지없이 후문 밖 분식집이나 식당으로 향하게 되는 것 또한 후문지역 학생들의 불편한 현실이다. 후문지역 4천여 학생의 대학 내 복지생활에 대한 자포자기로 인해 아마도 상록원 식당의 혼잡문제는 머지않아 자연스레 해결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식당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 현재 90%에 달하는 식당 이용이 감소됨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일 것이며 학생들이 학내 매장을 외면하게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또한 근래 지어지는 건물이 복사실과 매점 등의 편의시설 공간을 설계단계에서부터 고려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정보문화관을 바라보면서 드는 생각은 후문지역에서 주로 생활하는 교수와 학생은 복지환경에서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제는 더 이상 후문지역의 열악한 복지환경에 대하여 학생들이 묵묵히 감당하

고 참아내기에는 한계를 느끼고 있다. 반드시 식당과 매점공간, 휴게실이 확보되어야 하며, 무인복사기, 출력실 등의 편의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대학 운영자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가며 학외 시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구성원 다수의 고통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것을 편리함과 삶의 안락을 구하고자 하는 개인성향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이 진정으로 대학 발전을 고민하여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

로 삼아 동국발전의 초석으로 삼아야 하겠다.

대학 본부 각 부처의 구조조정과 함께 공간 이동이 이야기되고 있고, 더불어 정보문화관이 새로 들어서면서 학내 여러 공간들이 체계적으로 재편성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나마 주어지는 반가운 상황에서 대학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효율적인 대학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및 결정권자의 사려 깊은 대응방안을 기대한다.

의 학 상 식

건강한 피부를 위하여

요즘은 사회생활을 하는데 외모가 예전보다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 그런 것 같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없애고 싶어하는 피부의 잡티라고 불리우는 기미, 주근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기미는 흔히 질환이면서도 정확한 발생 원인이나 병인은 아직도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과민성약물 복용이나 임신, 간 기능 저하, 영양 불균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고, 특히 자외선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미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빈번하며 감상선 질환, 난소종양 등 내분비 질환이 있을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 몸의 멜라닌 세포를 자극하여 색소를 만들어 내는 작용이 활발해지기 때문이다. 증상은 연한 갈색 내지는 암갈색 혹은 흑색의 불규칙한 모양의 색소 침착 반이 주로 일광노출부인 안면과 눈 밑이나 이마에 대칭적으로 발생하며 일광 노출 후 색갈이 짙어진다. 가려움 등의 증상은 없으며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수면은 증상을 악화시킨다. 기미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피부의 가장 바깥 표면인 표피에 색소가 얇게 깔린 표피형, 깊숙한 진피까지 퍼져있는 진피형, 진피와 표피 모두에 병변이 존재하는 혼합형이 있다. 표피에 있는 기미와 달리 진피에 있는 기미는 약의 침투가 쉽지 않고 레이저나 화학 박피술로도 깊은 곳 기미의 색갈까지 없애기가 무척 어렵다. 기미는 생기기 않게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는 양산이나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 비타민 C 섭취, 스트레스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기미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기미에 대한 치료법은 연고를

바르는 약물요법, 박피술, 레이저 치료법 등이 있다.

주근깨는 일광노출 부위인 코, 뺨, 손등, 앞 가슴의 피부에 주로 생기는 3-5mm 정도 크기의 황갈색의 작은 색소성 반점으로 서양인에게 흔하며 동양인에게는 비교적 흔하지 않다. 원인으로서는 유전적 소인이 강해 부모 중 한쪽이라도 주근깨가 있으면 자식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햇빛에 노출되지 않는 부위는 생기기 않는 것이 특징이다. 출생시는 물론이고 유아기에도 나타나지 않다가 5세이후에 나타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점점 그 수가 증가되어 사춘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그 이후 점차 수가 줄어든다.

20대를 전후하여 대부분 없어지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주근깨로 인해 지나치게 고민을 한다면 정신 건강상 치료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기미에 비해 주근깨는 피부의 바깥 층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레이저나 박피술로 매우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 그러나 치료 뒤 햇빛을 받으면 다시 재발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햇빛 차단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격적으로 햇빛이 강해지는 신록의 계절이 시작되므로 맑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자의 글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취업정보

롯데인력관리위원회
신입사원 모집, 전공무관, 5월 29일 마감
(주)대륙화학공업 토목직 모집
토목공학과 5월 29일 마감
(주)은산해운항공
업무부, 영업부 사원 모집 전공무관 5월 29일 마감
그린서비스 통번역요원 모집
영문, 일문 5월 29일 마감
뉴리이프 그룹
조연출 코디네이터 모델 캐스팅 부분 모집 전공무관 5월 29일 마감
(주)새한
신인가수 스카웃, 제작 담당 전공무관 5월 28일 마감
민간위탁공공근로사업

행사진행요원, 전산과 작업 DB개발 전공무관
(주)노브랜드
무역, 경리, 수출, 전산, 리셉션 부분 전공무관 6월 19일 마감
(주)동부생명 보험
파이낸셜플래너, 보험영업 부분, 전공무관 6월 11일 마감
(주)한국미쓰도요 서비스
기술영업 부분 정밀기계 제어계측정밀전자공학 전공 6월 5일 마감
PC POWER ZINE
외신기자 전공무관 5월 31일 마감
(주)세화메디칼
영업부 자연계열우대 5월 31일 마감



Cholpon (인문과학대 한국어문학부 2)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요” 키르키즈와 비슷한 문화환경 ... 아름다운 한국에 매료

봄향기가 그윽히 퍼져나가는 기숙사 생활관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앉아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 여학생이 있다.

맑은 농동자에 수수해 보이는 모습이 한국인들 틈 속에서 전혀 다른 외국인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녀의 이름은 'cholpon', 한국어문학부 2학년인 그녀는 “저, 한국말 잘해요”라는 첫마디와 함께 수줍은 미소를 자아냈다.

그녀는 작년까지 우리학교와 자매결연한 키르키즈 국립종합대학교에 다니면서 동양문화학을 공부하며 한국어를 배우는 1학년생이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남달리 외국어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 다른 나라 말과 문화를 배우길 좋아했던 그녀

는 교환학생으로 뽑혀 유학온 것이다. “지난해 9월 난생 처음 다른나라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많이 떨렸고 색다른 환경과 사람들 속에서 어색했지만 이젠 쌀밥에 김치를 먹고 뒷사람을 공격하는 한국의 생활에 많이 익숙해 졌어요”라며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가는 그녀를 볼 수 있었다.

“한국어는 우리 모국어와 문법면에서 비슷하고 그곳에는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게 되었어요. 어렵긴 하지만 재미있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씩 이렇게 길게 이야기 하면 숨이 차요”라면서도 또박또박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한국은 아름답고 재미있는 나라인 것

같아요. 꽃과 나무들도 많고 특히 한국의 역사적 고장인 경주에 있는 동국대에서 공부할 기회가 된 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참된 일이에요. 한국을 알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한국을 이해하고 더 많은 문화를 배울수 있어 뿌듯하다며 그녀는 뺨긋 웃어보였다.

“동국대와 모국에서 다녔던 학교의 모습이 많이 비슷한 것처럼 느껴져요. 학업에 열중하는 모습,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 그렇지만 몸이 아프거나 힘들땐 고교가 그리워지고 옛친구들이 생각나곤 해요” 잠시 그녀의 농동자는 살며시 흔들리고 있었다.

“여유있는 시간에는 TV를 보거나 음악을 들어요”이젠 한국의 문화에도 제법

익숙해 저 버린 모양이다.

그러나 이제 이번 학기를 끝으로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그녀의 표정은 한없이 아쉬워 보인다. 그녀도 그녀는 “여기 많은 동대 학생들도 다른 나라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길 바라고 그간 보살피 주신 교수님과 생활관 관장님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다시 한국에 와서 대학원을 다닌후 한국에서 통역일을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한동안 세월이 흐른 뒤 그녀가 다시 한국에 돌아와 여기 푸른 캠퍼스를 거니는 모습을 잠시 그려본다. (X)

dg19910487@mail.dongguk.ac.kr

중 구

새로운 중구 만들기 구민 의견 수렴
중구청에서는 구정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현실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중구민을 대상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공모한다.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구정에 관련된 법령·제도·사무 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구재정 확충 및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기타 생활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을 A4용지 1~2매 분량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창의성·경제성·실용성을 기준으로 심사하며 최우수상 1명에게는 30만원, 우수상 3명에게는 각 20만원, 장려상 4명에게는 각 1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문의=중구청 정책기획과 (2260-1606)

중구청 아르바이트 모집
중구청에서는 중구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99년도 하반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증 사본과 주민등록증을 지참,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중구청 총무과에 접수하면 된다.

△근무기간=7월 2일부터 8월 6일까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문의=중구청 총무과(2260-1313)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 가동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의주로 2가 16-4)이 내일(25일) 준공됨에 따라 종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분리·배출하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된다. 이는 자원재활용처리장에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일괄적으로 선별할 수 있

게 됐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중구내 13개 동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던 것을 중구 자원재활용처리장으로 집중, 인건비를 포함한 연간 16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뿐 아니라 도시미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고는 위의 사실과 무관하게 계속적으로 분리수거를 실시한다.



지역소식

7월10일까지 공예품경진대회 개최
경북도는 오는 '제29회 경북도공예품경진대회' 및 '제30회 산업디자인전람회'를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경주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 대회는 새로운 공예품의 개발촉진과 우수 공예품의 수출 및 판로기반을 조성하고 창의적인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위해 열린다. 7월중 열리는 전국공예품대전과 연계해 개최되는 이 대회는 △6월 22·23일 출품작 접수 △6월 29일 심사 △7월 8일 시상 △7월 8·9·10일 전시등으로 전개된다.

특히 특선이상 입상한 20개의 공예작품은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출품 및 2002년 월드컵 유망상품홍보관 참여시 우선지원, 민속공예품 품질인증서 발급추진을 받는다.

포석정에서 9세기 기와 발견
국립경주분황제연구소(소장=홍성빈)은 지난 7월 사적 제1호인 포석정 남쪽 담장밖에서 포석이라고 새겨진 기와조각을 발견했다.

출토된 명문 기와의 문양은 수지문과 명문이 음각된 너비 6cm가량의 두들개로 조각된 것이고 명문은 가로 5.5cm, 세로 8cm로 구획된 방곽내에 세로로 쓰여져 있는데 '포'자는 가로 4.3cm, 세로 4cm이고 '석'자는 가로 2.4cm, 세로 3cm 크기이다.

한편 명문 기와에 적힌 포(鮑)자는 제각 당시 기와 제작자들이 포(鮑)자를 약자화하여 성형화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 명문 기와는 창건연대에 대한 기록이 없는 포석정에 대한 제작시기를 밝히는데 값진 자료이며 추후 조사가 완료되면 현재까지 통용되고 있는 포석정 창건연대에 대한 9세기 초반

제작설보다 그 기원이 올라갈 수도 있다.

'미한 민족 예술제'로 경주·익산 화합의 장 마련
전북 익산시의 경주시는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마한민족예술제 기간에 익산시와 경주시일원에서 두 도시를 대표하는 서동왕자와 선화공주를 선발하여 동서화합열차를 타고 혼례식을 재현했다.

자매도시간의 우의증진과 동반발전을 도모하고 동서화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이원식 경주시장은 “두 도시가 갖고 있는 문화적 역량과 경험, 정보를 공유, 무한 경쟁이 펼쳐질 21세기에는 다같이 세계 최고의 문화, 역사, 관광도시로 뻗어나자”고 말했다.

경 주

소나기

모집단위 광역화



△우리 대학은 업그레이드 안하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이 대학 아니던가!
△직할시는 광역시로, 모집단위는 광역화로.
△홍란을 가중시키지 말아도!
△도대체 높은신 분들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어야지...
△무슨 속셈이야.
△개나 소나 다 받으라고 해.
△졌다 져어.
△우리가 바본 줄 알아.
△삼중 백화점=모집단위 광역화
△선후배 사이 다 갈라 놓아 학생들 단합 잘 안되게 하고 돈은 돈대로 많이 남겨 먹고 탁월한 선택입니다.

△모집단위를 광역화 시키나 시키지 않으나 마찬가지.
△모집단위보다 교수를 광역화하자.
△지원금에 눈이 먼 우리.
△너희 아들은 여기 안 보낼꺼지?
△학생들이 너희 꼭두각시냐?
△안돼 ~안돼 왜 계열별 모집.
△후배가 누꼬?
△내가 속한과는 어디메이뇨.
△누가 주인이야?
△무늬만 광역화, 준비나 좀 하쇼.
△나는 광역보다 시골이 좋다.
△너희 맘대로 그러지마~
△나는 후배랑 사귀고 싶어.
△누가 우리 후배 본 사람 없쇼.

“레포트 베끼기”

학생들의 능력무시한 일률적 과제도 문제

레포트 베끼기! 한 두해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번 두번 있었던 일도 아니다. 레포트를 한번이라도 내본 경험 이 있다면... 아마도 한번쯤은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
따라서 이 베끼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
교수님들이 내주시는 레포트 중 '학생들이 할 수 없는 레포트'가 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
얼마전 내가 받게 된 레포트 역시 그런 하다. 그 레포트는 프로그램을 (어떤 언어를 사용해도 되는) 짜는 레포트 였다. 솔직하게 말해서 난 겁쟁이다.
어떻게 그 레포트를 작성할 것인지 막 막했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인터넷, 통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선배들도 모두 그 레포트를 위해 만났다. 그러나 겁을 거의 통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선배는 "프로그램 짜는게 쉬운 일인줄 아냐?"며 오히려 핀잔을 주었다.
그래도 아는 편으로 소스를 얻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시 출력해서 제출하였다. 물론 다른 학생들도 나와 비슷하게 제출했다. 그런데 다음시간이었다. 교수님은 우리가 냈던 그 레포트가 하나

같이 같은 내용이었다며 우리를 나무라시는 것이었다.
교수님은 레포트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사람이라는 말을 하셨다. 자신이 할 수 없으니가 내지 못한 것이라고, 그래서 더 양심적이며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인지 또 오히려 소스나마 찾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레포트에 대한 열정이 있어 그런것이 아닌지, 마지막으로 레포트 앞에서 그런식으로 생각 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레포트 베끼기!! 학생들의 잘못된 행위 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최화영 (eng40@hanmail.net)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4~5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게살간pong기(1500) 김치볶음밥(1300)
화	하이리이스(1300) 순살돈까스(1500)
수	오징어튀숙우(1500) 열무비빔밥(1300)
목	갈비찜백반(1500) 스파게티백반(1300)
금	삼선볶음밥(1500) 참치김치볶음밥(1300)

(단위:원)

상록원 학생식당 차림표

월	생선가스(1300) 참치김치찌개(1300) 웨이채볶음(1300) 생선가스(1300)
화	후랑크볶음밥(1300) 설랑탕(1300) 떡볶이백반(1300) 후랑크볶음밥(1300)
수	탕수육백반(1500) 어묵비빔밥(1300) 연두부백반(1300) 탕수육백반(1500)
목	부추잡채(1300) 소고기국밥(1300) 모듬볶음밥(1300) 부추잡채(1300)
금	짜장밥(1300) 오징어회덮밥(1500) 부대찌개(1300) 짜장밥(1300)

(단위:원)

축제, 더이상 흥청망청 안된다

‘올해는 뭔가 다르겠지...’ 하며 축제를 맞이했다. 그런데 며칠사이에 “우리학교 축제 왜 이래요?”라는 후배들의 푸념섞인 말을 들으면서 나의 신입생 시절의 축제를 떠올려 보았다. 기대에 부풀어 맞이했던 축제... 그러나 학교에 배인 술냄새에 나 역시 취해버려 술에서 시작해서 술로 끝났던 기억이 나의 새내기 시절 남아있는 축제에 대한 기억이다. 지난 해와 다를 바 없이 여전히 엉망인 축제를 보면서 우리학교의 축제에 대해서 생각해봤다.
우리학교 축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의 무관심인 것 같다. 우리는 축제가 재미없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으로 축제를 외면한 채 지금 축제가 그냥 재미있기만

을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학생과 학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축제를 축제답게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특히 대학의 축제는 활발하고 건강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의 축제는 어떠한가? 흥청망청 마셨던 술로 끝이 만발한 교정이 꽃향기가 아니라 술향기로 찌들고 대학생의 건강한 아이디어는 간데 없고 지난해의 지속한 모습의 답습이 고작이다. 그리고 이런 축제답지 못한 축제는 우리를 만족시키기보다는 실망시키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악습은 애교심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항렬(문과대 일어일문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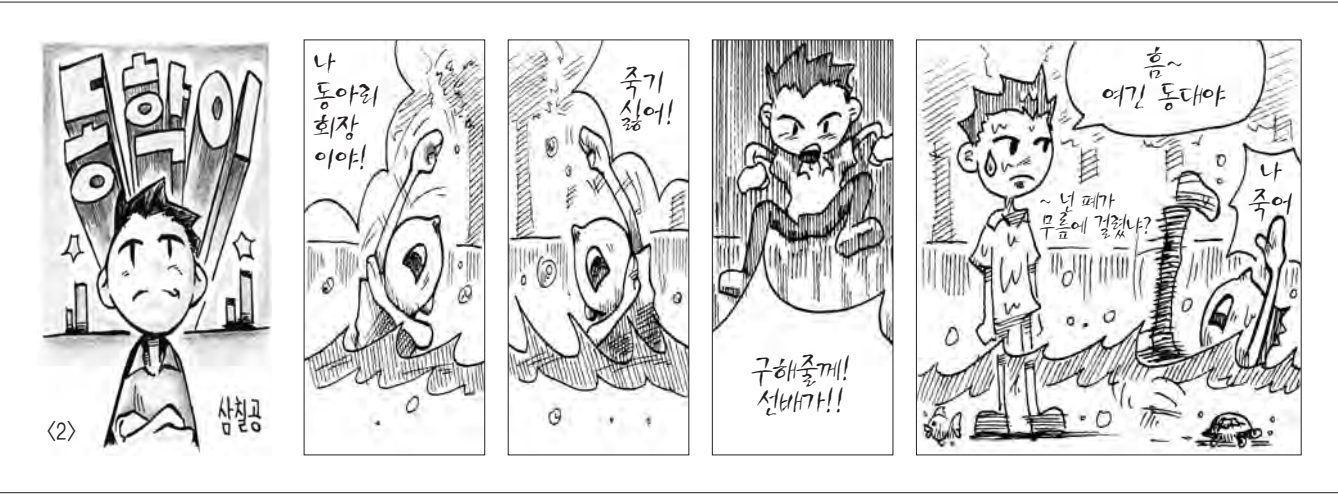
컨닝이 학교기물 더럽힌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동악의 교정에 내리쬐인다. 이런 봄의 정기가 가득한 동국대를 거닐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푸근해진다. 모든 캠퍼스가 푸르른 빛을 발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강의실 밖의 풍경일 뿐이다. 우리의 캠퍼스가 젊음의 푸른 빛이라면 우리가 강의를 들으며 지식을 쌓아가는 공간인 강의실은 녹색하고 우울한 잿빛이라 할 수 있다.
늘 우리와 함께하는 강의실의 책상과 의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얼굴을 가리고

“대학문화 = 술!”
이제는 벗어나야

얼마 전 어느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신입생들에게 동아리 전통의식을 보여준다고, 이른바 “신입생 길들이기”를 행하다 학생들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소위 ‘우리 나라 최고의 명문대’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이는 우리 대학 문화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 하겠다.
오늘 날의 대학 문화는 간단히 술 문화라는 말로 대변되어질 듯 하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해마다 신학기면 늘상 있는 일처럼 되어버린 이와 같은 행태는 한 마디로 전통도 뭐도 아니다. 술을 잘 마시는 것이 마치 능력처럼 인정되는 사회적 시각,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일부 그릇된 선배들의 권위주의 등이 빚어낸 이런 혼란은 그 어느 누구를 탓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름을 탓하거나, 그들로부터 우리가 향유할 문화를 기대하거나, 혹은 그들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어른애가 아니다. 대학 문화는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누리고, 책임져야 할 우리 대학인들의 문제이다.
언제쯤이면 “대학 문화=술 문화”라는 공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참다운 지식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미림(의과대 의학과)

있다.
지성인이라는 집단이 모여있는 대학. 그리고 그 대학교라는 공간 중 우리의 지식을 쌓아가는 장소인 강의실이 점점 우울한 빛으로 변해버리는 현실이 안타깝다. 강의실 안의 깨알 같은 글씨는 팍 흘러버 열심히 공부하는 동국인의 모습이 아닌, 주위의 눈치를 살피며 학점만을 위해 바둥거리는 나약한 동국인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든다.
이 얼마나 슬픈 현실인가! 작은 사회라 할 수 있는 대학에서 우리는 작은 비리의 조각들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아장아장 걸으며 엄마와 함께 가던 유치원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을 배웠고 좀 더 많은 지식의 습득을 위해 대학이라는 곳에 왔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지식의 습득은 커녕 유치원에서 배운 인생의 필수사항마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다.
동국인들이여!
그대는 항상 깨끗한 세상을 원하며 깨끗하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한 그대의 바램을 위해 그대는 노력하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지성인으로서의 동국인이란 책상위에 깨알같은 글을 채우기보다는 팍 흘러버 책과 싸워야할 것이며, 우리의 동국대 강의실을 소중히 해야 할 것이다.
난 그대가 우울한 잿빛 강의실에 앉아 작은 비리를 저지르는 동국인이 아닌 하나하나 스스로 배워가는 동국인의 모습을 가졌으면 한다.
김주현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부)



동악광장

목매골

축하합니다

△성민오빠 생일축하해. 02가
△킴동 98·99 M.T 갔다 온거 축하합니다.
다.
△일문 일일호프 그 화려한 잔치를 축하!
카! 훗! 내표 거절하고 안은 사람은 후회할걸!
-yellow

수고하셨습니다

△대동제 기간에 즐거우셨나요, 모두모두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다

△멋진 아농, 활기찬 아농, 열혈 아농!
아농 16기 파이팅!
△15기두 파이팅이다! -072가

그리고...

△나의 모든 것, 자.자.연. 소홀히해서 죄송합니다. 곧 컴백할게요.
-pegasus numir
△세경언니! 아저씨랑 열렁 결혼해요. 그리고 수업 좀 들어와라. -예쁜 오이가
△아농의 유운상야! M.T. 갔다 죽었냐, 살았냐! 얼굴 한번 보자. -재영
△대구미 동문화 금요일 고기 구워먹은거 정말 좋았어요.
△대동제 때 타론점 너무 신동방통했어요.
-지나가는 행인!
△경식야! 윤호야! 종은야!
스타크래프트 설욕전 한판 패려야지.
-의문의 사나이 체스턴마크맨
△성민이형, 게임매거진 5월호 좀 갖다주세요.
-99

최송합니다

△재원형, 성용형, 그 밖의 모든 형, 금요일날 정말 죄송했어요
-재영 올림

온방글

축하합니다

△5월 27일 브레드주 선배의 생일을 축하하며...
-소낙비 후배일동
△윤! 5월 28일, 생일 축하해. -우
△화학과 4년 변해규 결혼 축하해요.
-동문일동
△5월 27일 전현미양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항상 너의 곁에서 바라보고 있는...
-예뻐와 기타등등
△17일부터 성인이 된 선배님을 모두 축하드려요.
-99
△정보산일 95학번 승재선배의 CC탄생을 축하드립니다. 애인 잘 챙겨 주시고요.
-귀여운 96후배들이
△봉기야! 1년휴가 진짜서 축하해. 진짜 썩직한 대한의 남자가 되어서 오렴.
-수정, 미진, 경희

동대신문에 바란다

학교의 나침반이 되도록

학교의 나쁜 제도 개선 ... 여론 주도해야

오래전부터 동대신문에 바라는 바가 하나 있다.
교내의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언론매체로서 사실전달과 비평에만 치우치지 말고 여론을 주도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대학 발전을 목표로 한, 바르고 합리적인 판단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디까지나 학업이 우선인 학생들이 대학인으로서 누려야 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주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학신문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욕심을 내지 않을 수 없다.
추상적인 대학발전이란 구호보다는 생존이란 단어가 보다 우리의 관심을 가지게끔 하는 어려운 현실을 훌륭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모

든 구성원들이 가지는 스스로의 자각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또한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제도나 습관등의 개선이, 실현 가능 여부나 그 효과가 불투명한 외형적인 발전방안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신문에 바라는 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뚜렷한 목표를 위해 모든 구성원들이 결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현실을 직시하고 알려줄 필요가 있으며, 우리 주위의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 습관등이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깨우쳐주어야 할 것이다.
언론이 이러한 일들을 실현해 나간다면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을까 하는 평소의 생각을 적어보았다.

이진형 (경주캠퍼스 교무처 수업계장)

비판정신 부족 ... 홍보기능 줄여야

대학언론이 가지는 소명은 무엇일까?
나는 사실을 알리는 공보기능, 자랑거리를 알려 구성원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하는 홍보기능 뿐만 아니라 현장에 뛰어드는 현장 정신과 비판기능을 들고 싶다.
동대신문은 공보기능과 홍보기능은 비교적 잘 수행하고 있으나 현장정신, 비판기능은 떨어진다고 본다.
본관을 점거하려는 학생과 이를 막으려는 교직원 간의 물리적 충돌을 담은 사진(동대신문 4월 5일자 2면)을 게재하기에 앞서 학교 당국자와 총학생회 대표의 지상 대담(紙上對談)을 기획하여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더군다나 '학자협상' 진행 당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총학생회에서 배포한 유인물과

대자보가 거의 전부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쉬움은 더욱 크다.
다음으로 전문적인 모니터링을 받을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일반 독자의 모니터 글을 쓰는 것도 생생한 독자의 의견을 참고한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질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일과성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언론 문제를 연구하는 동아리나 신문방송학과 내 학회, 언론 전공 대학원생 등의 협조를 얻어 바로 전 호(號) 신문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비평을 받는다면 동대신문의 질도 높이고 기자들의 전문성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성대신문의 경우 교내 언론 동아리와 특약을 맺고 전 호에 대한 종합적 비평을 받아 게재하고 있다.
역사가 깊을수록 그림자는 길어지는 법이다. 전통이 길어질수록 책임이 커진다는 것을 동대신문 성원들이 이해해주기 바라며 더욱 발전된 동대신문을 기대해 본다.

김진 (realjeany@hanmail.net)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시금치국(1300) 돈육덮밥(1600)
화	오징어무국(1300) 전주비빔밥(1800)
수	계란국(1300) 스파게티/수박(1800)
목	어묵전골(1300) 김치볶음밥(1600)
금	콩나물무국(1300) 잡채덮밥(1800)
토	새알미역국(1300) 햄어채볶음밥(1600)
일	육개장(1300) 오징어덮밥(1600)

(단위:원)

TEL : 22603491·2
(0561)7702058
FAX: 22791270
(0561)7702057
하이텔 · 나우누리 PC
ID:dg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사진,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氣란 무엇인가

미지의 세계에 주파수를 맞춘다

기는 우주 공간에 충만되어 있고 전신에 끊임없이 돌고 있는 존재이다. 기에 대한 개념은 원시 사머니즘에서 발원한 것이지만 후에 철학적으로 기의 개념을 가장 잘 정리한 인물은 노자와 장자다. 이들은 기를 우주의 삼리만상을 존재케 하는 근원적인 힘으로 파악하는 기일원론적 관점에 서 있었다.

그러나 기를 정의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정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생물이 보편적으로 지니고 있는 양상인 물질대사, 항상성, 생장, 운동, 자극감수성, 생식, 적응 등을 이해하는 것처럼 '氣'를 이해하는 쉬운 방법은 기의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가능하다.

왜냐하면 기는 무형, 무색으로 직접 관찰할 수 없고 다만 감각이나 사물의 각종 변화에 근거하여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의 본성은 활동문화하는 것이며, 기의 활동문화는 운행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하

늘에서는 천문(天文)이 되고, 땅에서는 지리(地理)가 되며 인물에서는 인사(人事)로 하늘과 땅과 인간(天地人)의 기본법칙이 된다.

천문, 지리는 천지자연의 원리이고, 인사는 수신과 치국의 원리로서 인간은 자연의 이러한 원리와 상호 원활한 소통에 의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기는 인간과 자연을 연계시켜주는 매체인 동시에 일체 사물의 생성, 발전, 변화는 물론 인체 생명현상의 근원이 된다.

한의학에서 기는 진단과 치료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락의 존재와 불기분의 관계가 있다. 기는 경락을 따라 전신을 끊임없이 돌면서 생명의 바탕이 된다.

기가 순조롭게 순행되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기의 순환이 막혀서 몸의 균형을 잃게 되면 병이 된다.

이러한 기의 정체는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물질적 특성에 관해서는 많은 사실들이 밝혀져 왔다. 그러나 기는 우리

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질적 측면 외에도 기능적 특성, 에너지적 특성(기운), 의식적 특성(정서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기능이 좋다, 나쁘다, 또는 간기능에서의 기는 기능을 의미한다. '월기가 없다' 느니 '기운이 쇠약하다' 느니 '기운이 난다' 는 용어는 기의 에너지적 특성을 표현한 것이다.

기분이 나쁘다, 사회적 분위기, 군의 사기에서의 기는 의식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에서 기의 정체에 대한 이해는 물질적, 기능적, 에너지적, 의식적 특성을 내포한 생명력의 개념으로 그 다양성을 포괄 할 수 있다.

현대의 측정기들에 의해 적외선, 정전기의 증가신호, 미립자의 흐름, 전자파, 자기의 모습으로 포착되는 것은 그런 것들을 매개로 하여 일부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 자체가 기는 아니다.

기는 생명이나 우주의 근원적 실체로서 현대물리학의 범위를 초월해 있는 존재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 의학은 기의 명(明)인령(靈)과 기의 능(能)인신(神), 기의 조리(條理)인리(理)와 기의 경험인지각, 기의 순환인 변화의 기능에 의하여 생명현상이 완전하게 발휘된다고 인식한다. 즉 기의 경험으로써 지각이 발휘되어야 기의 조리로서의 장부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여 기의 밝음으로서의 영과 기의 능(能)함으로서의 신(神)이 갖추어 질 것이고 이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기의 순행으로서 변화가 제대로 되어 나감으로써 생명활동이 유지될 수 있다.



신 홍 목
한 의과대 한 의학과 교수

손쉽게 기의 세계를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열거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우선 호세실바가 창안한 실바 마인드 컨트롤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는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 잠재능력을 통해 몸을 건강하게 하고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먼저 척추와 고개는 바로 하고 편안히 앉은 상태에서 눈을 감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순서대로 온몸의 긴장을 완전히 푼다.

긴장을 풀겠다는 의지를 유지한채 숫자 2만을 생각한다. 무색무취의 2를 모든 생각으로 지리잡게 한다. 의식이 안정되면 구름이나 바다를 생각하며 정신을 편안하게 한다.

그다음 1일이라는 숫자를 마음속에서 외친다. 이후 열에서 하나까지 천천히 마음속으로 세어본다. '더 깊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며 세어나간다. 그 후 자신이 가장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마련한다. 산이든 바다든 상관없이 상상의 세계를 마음속의 현실로 만들어 낸다.

바로 여기가 호세실바가 말하는 알파의 세계다. 여기에 들어가면 마음속으로 조용히 자신이 원하는 문장을 속삭인다. '나는 매일매일 모던면서 좋아지고 있다' 등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문장을 만들어 자신에게 속삭여 준다. 이 과정을 마친후 알파상태에서 나올 때는 '이제 다섯을 세면 깨어나온다' 하고 나오는 등 자신에게 마음속으로 속삭인 후 빠져나온다.

또한 뇌호흡에 대해 살펴보면 과거 토크쇼에서 8·9세의 어린아이가 뇌호흡으로 인해 가려진 그림을 알아맞추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이는 7·8세에 기가 통해 약한 생각이 없으면 꾸준히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기가 열리지 않더라도 기억력 증진과 노화방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실생활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뇌호흡을 살펴보고자 한다.

어깨잡고 좌우로 목둘리기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잡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최대한 돌린다. 숨을 들이쉬면서 고개를 최대한 돌리고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온다. 같은 방법으로 반대로 행한다.

배꼽감싸고 브레인 버튼 누르기
쇄골과 흉골이 만나는 부위(가슴 중앙에서 3cm정도 떨어져 있으며 쇄골 바로 밑 뼈가 없는 빈 곳으로 일명 '브레인 버튼')를 찾아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누른다. 왼손은 배꼽을 감싼다. 이후 30초에서 1분동안 지그시 누르며 마사지를 해주고 좌우뇌를 골고루 자극하기위해서 양손을 바꿔가며 누른다.

귀마지기
양손으로 귀를 잡고 당긴다. 귀 상단과 하단을 골고루 당기는 것을 3회 이상 반복한다.

발바닥 누르기
바닥이나 의자에 앉아 왼발이나 오른발을 오른쪽이나 왼쪽 허벅지 위에 올리고 두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을 누른다. 골고루 누르면서 아픈 곳이 있으면 여러번 눌러 준다.

8자 그리기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몸을 움직여가며 최대한 크게 8자를 그린다. 이때 눈은 손이 가는 길을 따라가면서 쳐다본다. 이 동작을 8회 이상 반복하고 팔을 바꿔 다시 반복한다.

이제 안경을 벗고 싶다
현재에는 컴퓨터와 TV가 사람들의 눈을 해치고 있다. 이에 기로 눈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해 본다.

손바닥 요법
티베트요가에서 나온 손바닥요법으로 손을 켓 모양으로 만들어 눈 위에 올려 놓아서 감싸하게 만든다. 외부 자극으로 예민해진 시신경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손이 뜨거울 정도로 강하게 비빈후 손바닥을 눈위에 얹는다. 안구를 눌러서도 안되고, 광대뼈에 손을 기대서도 안된다. 완전히 감싸한 것을 느끼면서 숨을 깊게 쉰다. 검은색은 뇌를 가장 효과적으로 휴식하게 만든다고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빛이 보인다면 시신경이 좋지 않다는 증거라고 한다.

마사지
파듯헤질때까지 손을 비빈 후 한 손가락으로 콧마루를 올라가면서 문질러주고, 코끝에서 미간까지 만져준다. 그 이후 미간에서 관자놀이까지 마사지 해주고, 눈썹 아래 만져지는 뼈를 따라 마사지해 준다. 이때 주의할 점은 눈동자에 직접적인 자극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나서 광대뼈와 귀 그리고 이마를 마사지 해 준다.

눈 깜빡거리기와 초점이동
평소 우리 습관은 근시가 되기 쉽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는 필요이상으로 압박을 받는다. 이때 눈을 깜빡거리라는 것은 눈에 수분을 유지하고, 긴장을 풀어 주고, 눈과 그 주위의 혈액순환을 증진시킨다. 또한 먼곳과 가까운 곳을 빨리 움직여서 보는 것은 시력저하를 막을 수 있다. 하지만 무리하게 시선을 빨리 옮기려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

학술부



기는 에너지, 즉 힘이라 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운이라고 한다. 기(氣)는 우주공간에 가득차 있고 모든 생명체와 모든 물질이 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리들의 몸에도 있다. 이것은 수련을 통해서 감각이 회복되면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로부터 기분이 좋다. 기운이 세다. 기가 산다. 기가 죽다. 기진맥진하다. 기절초풍하다. 기가 막힌다. 기가 찬다. 사기를 진작시킨다. 인기가 좋다. 원기

자기를 스스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풍류도인

왕성하다. 정기를 받고 태어났다는 등 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왔고 그만큼 친숙하게 지내왔다.

동양,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기를 만물의 근본으로 보았으며, 많은 학문이 기철학을 근본으로 성립되었다. 현대과학의 일부에서는 기에 대해 생체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연구되고 있고 기체, 고체, 액체가 아닌 제4의 상태 라고도 한다.

기를 학문적으로 나누고 분류하자면 복잡해지지만 인체내의 기를 가장 간단히 분류하자면 원기(元氣), 정기(精氣), 진기(眞氣))로 나눌 수 있다.

원기는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받아 가지고 나온 유한한 에너지이며, 정기는 호흡을 통해 음식물이 산화되면서 나오는 에너지이며, 진기는 정신집중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인데, 단학수련을 할 때 활용하는 에너지가 바로 진기 에너지이다. 진기는 다시 정·기·신 세 가지 에너지로 나눌 수 있으며, 마음에 의해 나타나고 조절되며 마음의 수준에 따라 에너지의 질이 달라지게 된다.

처음 입문한 수련자는 기를 느끼기 위해 지갑수련을 통해 손에 기를 느끼게 되는데, 이때 손에 있던 정기가 정신집중에 의해 진기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수련이 깊어지면 몸안에 있는 유한한 에너지가 아닌 우주공간속의 큰 기운을 활

용할 수 있다.

기는 활용하는 수련자의 마음의 수준에 따라 여러 가지 등급을 가지게 되고 기운은 밝고, 어둡고, 맑고, 가볍고, 무겁고, 세고, 약한 등 많은 기운들이 있으나, 가장 이상적인 기운은 조화로운 기운이다.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기운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사람 역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은 조화스러운 사람이다. 조화스러운 사람은, 개인은 물론 공동

사회단체 속에서도 사람들끼리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많이 사는 사회가 보다 살기 좋은 사회이며 조화스러운 분위기가 가득찬 곳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 변화시켜 주길 기다리지 않고 나 스스로 먼저 변화하여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정성인, 즉 풍류도인이며 선인(仙人)이라 부른다.

김도수(경주단학지원장)



기술인이 부인의 병을 기로써 디스리고 있다.

박양우 기자 dg19711437@mail.dongguk.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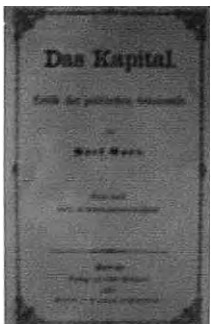
정재형 교수가 권하는 책

한국사 신론



이제에 의해
주입된 식민사관
에서 벗어나 온
전한 주체로서의
의식을 지닌 한
국인의 역사를
통찰했다. 우리의
땅과 우리민족사
의 과거·현재·
미래를 새로운
관점에서 되돌아 보게 한다.
이기백 지음

자본론



칼 맑스 지음

인간의 무의식의 상징

인간 내면의 세계에 존재하는 원시
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져 온 욕구가
보편적으로 작용하는 원형을 주제로 삼
았다. 집단무의식의 분석적 사고를 통해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아를 어떻게 실현
해야 할 지 깨닫게 해준다.

칼 구스타프 융 지음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학 분
야를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
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보여주
고, 그것을 극복
할 수 있는 대안
을 제시했다.

상호인정(相互認定)

곧 토끼의 달음질 능력을 거북이가 솔직히 인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것에는 오직
승자의 만세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반해서 여기
서는 패자의 태생적 능력을 인정하고 있으니
상대방을 생각하는 여유와 사실이 얼마나 멋있
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저만 잘났다고 생각하
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지 모르겠다. 힘
깨나 있는 사람은 때때로 힘없는 사람을 짓밟아
버릴려고하고,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을 거지 취급
하기 일쑤이고,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바
보처럼 보려고 하니 어찌 거북이의 생각보다 낮
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힘과 돈 그리고
지식도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런 것
들이 사람 위에 존재할 수 없으며 또 영원한

달하나 천강에

승자가 될 수 있는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면 거북이의 충고대로 다
른 경우에서는 토끼가 이길 수도 있는 것이다.
사람은 제 찰난 맛에 산다고들 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이기에 상대적인 관
점에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극단에 이르면 인간관계의 형평과 존
중 대신에 이기적인 정글의 법칙만이 존재하고
말 것이다.

새 천년의 역사를 개창해나가야 할 이 시점에
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인정
하는 태도이다. 왜냐하면 이런 풍토가 조성되지
않고는 올바른 민주시민이 될 수 없고, 또 어느
심리학자의 말처럼 '잠재적 열등감'의 우월적
표현은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파괴할 위험이 있
기 때문이다.



유 광 진
사파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등 & 사연(축원) 공모전 시상식

따뜻한 마음 오고간 감동의 자리 서울캠 여학생부처 주최로 지난 19일 열려

“아빠! 요즘 많이 늙어버리신 아빠의
모습이 느껴져요. 언제나 나의 커다란 아
빠, 아직도 그렇지만요. 최근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아요. ... 이제는 아빠의 힘겨운
짐을 조금은 나누어 도와드려야 할텐데,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정말 아빠의 자
랑스러운 말이 될게요. ...”

지난 19일 서울캠 여학생부처(부처장=
임둔희·사학)에서 주최한 '연등&사연(축
원) 시상식' 장은 그야말로 감동의 장이었
다. 이날 시상식장에서 사연(축원)부문 1
등상을 받은 이정현(자연과학부)양이 아
버지께 쓴 편지는 주위 사람들을 숙연케
했다. 뒤이어 공동으로 1등상을 수상한 조
운영(국문학부2)양도 여동생에게 쓴 편지

를 낭독했으나 미처 다 읽기도 전에 끝내
눈물을 터뜨렸다. 시상식장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히는 순간
이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해 여학생부처에
서 마련한 '연등 만들기&사연(축원) 대공
모'전은 그저 연등을 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등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평소 고마운
분들을 위해 소중한 마음으로 연등을 만
들고, 편지를 써서 감사의 마음을 전해보
자는 뜻에서 기획된 이번 행사는 참여한
학생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작품을 지켜본
사람들까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을
받은 것이다.

사연(축원)부문의 2등상은 이복자(중문
3)양과 가후현(인문학부2)군이 공동수상
했으며, 3등상은 손미성(국문학부2)양에게
로 돌아갔다. 사연(축원)부문 심사를 맡은
임기중(국문학) 교수는 “이 사연들은 글
로 쓴 연등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마음
의 연등'이다”며 심사평을 밝혔다.

한편 연등부문에서는 장의령(미술4)양
이 지혜를 찾아가는 맑은 마음으로 연꽃
모양의 빛을 찾아가는 모습의 동자승을
잘 표현한 '우마종등'이 1등상을 수상했
다. 또한 2등상은 박주현(경영학부1)양의
'부모사랑등'이, 3등상은 성미현, 이영경
(미술3)양의 '소망연꽃등'이 수상했다. 심
사를 맡은 법산(신학) 스님은 “출품된 작
품들의 독창성과 성숙성이 부족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본교의 건학이념을 살리면서 동시에 주
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나게 한 자리
였던 '연등&사연(축원) 시상식' 장. 내년에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 동국인이 참여
해 더욱더 가슴 훈훈한 자리가 되길 기대
해본다.

김미경 기자
pink@cakra.dongguk.ac.kr



서울캠 계산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3회 목errick락 페스티벌

“주머니털어 진정한 락을 노래한다” 교내 순수 아마추어 락그룹 모여 ‘교감’ 이뤄

“Rock에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
합니까?”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목errick락
페스티벌이 지난 20일 서울캠 만해 광
장에서 열렸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
때문에 예년에 비해 관람객의 수는 적
었지만 락을 즐기며 환호하는 모습은
여느 행사와 비교해 뒤지지 않을 만큼
그 열기는 대단했다. 이번 행사는 강중
원 밴드, 마구만, 먼도날 등 본교에서
락을 매개로 모인 10여 개팀이 공연을
해 눈길을 모았다. 해마다 이 행사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 공연을 신청하
는 팀이 모두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
이 벌어질 정도다. 이번 행사에서도 시
간관계상 규모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
었다.

이번 행사는 대중제와 관계없이 자체
적으로 진행해오던 행사를 처음으로 대
동제 기간 중에 치러 축제의 흥을 더욱
돋우는 계기가 됐다.

흔히 락이라 하면 저항정신을 바탕으
로 생겨난 음악이라는 정의를 하고 뭐
가 더욱더 거창한 의미를 찾기 위해 노
력한다. 락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락 페
스티벌 참가자들은 입을 모아 한마디로
잘라서 말했다.

“락은 락이다.”

하지만 그들은 학교의 지원도 없고
마땅한 연습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소모
임을 꾸려왔는데 직업상 락을 하는 사



락그룹 '피어리스턴'의 열창에 관중들이 열광하고 있다

람들도 아니고, 단지 락이 좋아서 모인,
말 그대로 순수 아마추어 락 그룹들이
다. 유일하게 '백상'의 팀원들은 정식동
아리로 인정돼 그나마 연습장소라도 마
련된 상태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본교
소모임들은 그들의 주머니돈을 털어 연
습을 하고 악기를 사는 열악한 환경에
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들은 락을 애써 정의하려 하지 않
고 단지 락이 좋아서, 락이 전부라고 믿
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것이 그

들만의 정의다.

이번 행사는 단순히 학교 행사로 치
부해버릴 수 있지만 이번 락 페스티벌
은 '락'을 공유하며 서로가 교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보고싶었다는 그
들의 취지를 느낄 수 있다. 더 이상 말
이 필요 없는 자리, 락이 있기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그들은 이런 행
사를 통해 만들어 가는 것이다.

양경민 기자

yangkang@cakra.dongguk.ac.kr

동대신문
생활광고

성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학칙을 제정합니다

최근 대학내 성폭력 사태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본교에서도 이러한 일이 벌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젠 대학도 더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성폭력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합니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을 위해
식발을 하고 있는 경주캠 총여학생회장

